# The Korea Times Toronto

(일간) No. 608 1981년9월2일(수)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Wednesday, September 2,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SEP 14 1981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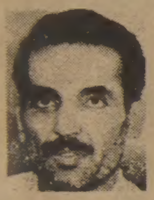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of Toront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Friday & Saturday issues are printed together.
Subscription Fee
$90/year, $8/month
구독료(선금)연$90, 월$8
영구구독료 $500.00
ISSN 0319 2962
2nd class mail No. 5248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416) 533-2361~4


# 이란 대통령·수상 피살

## 수상실 폭발사고, 15명 사상

## 테헤란 애도인파 100만

(테헤란) "미국에게 죽음을"이란 스로건을 내세운 백만의 인파는 테헤란거리를 누비면서 대통령및 수상의 죽음을 애도했다. 30일 이란 수상실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는 라자이대통령과 바르나르수상의 죽음뿐만 아니라 회교정부의 지도력자체를 뒤흔들었다. 이란정부는 전례대로 이번 사고도 미국첩자들의 소행이라고 낙인, 또 한번의 숙청회오리를 예상케 했다. 지난 6월 74명의 성직자가 죽은 폭발사고에 이어 이번사고는 반니·사다르의 실천주의자들과 회교교리를 내세운 호메이니과 성직자들과의 암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파리에 있는 사다르과 반체제 인사들은 회교정부의 몰락을 예언하지만 미국정부의 분석가들은 회교정부가 1~2년은 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란에 있는 미국인들은 이 두체제의 계속된 혼란은 군부쿠테타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고 보고있다. 전독재자 「샤」의 적은 오늘날 호메이니의 적도 된다. 이란의 민주화를 외치는 이 지하운동가 들은 60년대 「샤」의 독재와 맞서 지하운동을 벌였으나 이제는 호메이니가 이끄는 회교공화당정부에 맞서 싸운다. 실각된 반니·사다르는 회교지도자들과는 달리 불란서에서 교육을 받아 지식인계급에서 인기를 받아왔었다. 외신이 전하는 폭발사고는 다음과 같다.



◇라자이 이란대통령

◇자바드 이란수상

(외신종합)이란의 알리·라자이 대통령과 자바드·바호나르 수상이 29일 있은 수상관저 폭발사고로 사망했다고 이란국영방송이 30일 발표했다

이 발표에 앞서 이란통신들은 「미국첩자」들이 일으킨 폭발사고로 두 지도자가 부상했다고 보도했었다

31일 런던에서 청취된이란방송은 라자이 대통령의 장례식은 5일후 거행된다고 발표했다

이번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은 라자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실각된 반니·사다르 전대통령 밑에서 수상을 지낸바 있다

한편 파리에 망명중인 반니·사다르의 대변인은 특별성명을 통해 "승리가 가까왔다"면서 온 이란인은 기하에 숨어있는 반혁명군에 뭉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고는 반니·사다르 대통령 실각후 두번째로써 지난 6월28일에는 아야톨라·베스티 이란회교공화당 의장등 수십명의지도자가 목숨을 잃은 사고가 있었다 베스티는 호메이니 다음의 제2의 실력자였다

폭발사고가 있은 직후이란관영 파스투신은 5명이 죽고 15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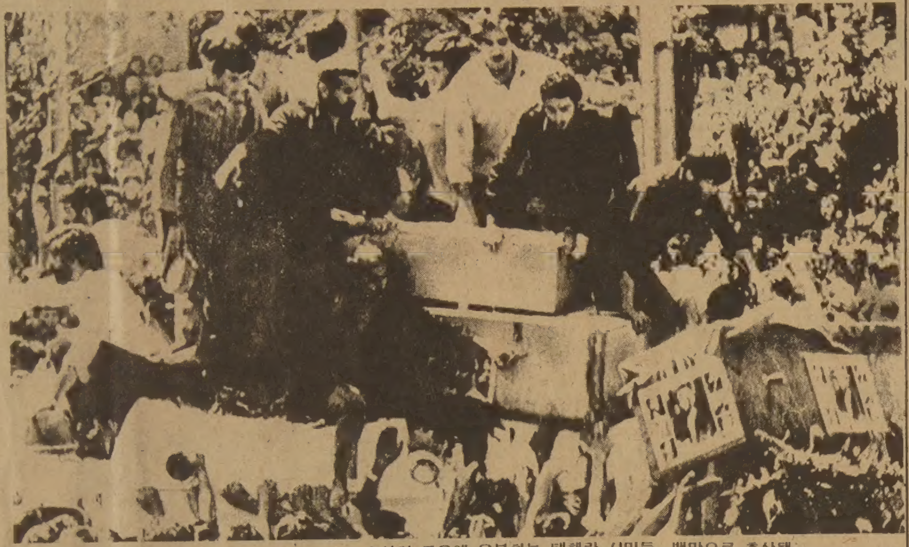
이번 폭발사고의 범인은 확실치 않으나 지난 6월사다르 실각후 회교성직자정부를 공격하는 도시게릴라의 소요가 계속됐었다

이 폭발사고후 이란의 회교정부는 라프산지나 내상의 주재 아래 긴급각의를 열고 "이번 사고에도 불구 회교혁명은 계속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6월부터 이란의 많은 회교지도자들이 살해됐으며 파스투신사는 세번이나 수난공격을 받았다

타격을 받은 회교지도자 정부는 전국적 반체제 게릴라 색출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이후 수백명의 반체제인사들이 처형됐었다

반니·사다르는 파리에서 "5명의 회교지도자만 죽으면 회교정부는 무너질것"이라고 말한바있다 라자이 대통령 바호나르 수상도 5인 회교지도자에 포함됐었다



◇라자이 대통령과 바호나르 수상의 죽음에 울분하는 테헤란 시민들, 백만으로 추산됐다. 이 두 지도자는 수상관저의 폭발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 앤·머리CNE 출연

## 미·일·호주등지도 대인기

캐나다가 배출한 세계적 인기가수 앤·머리의 쇼가 9월2일(수)CNE 그랜드 스탠드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72년에 이은 2번째 CNE 공연이다.

최근들어 어느때 보다도 많은 팬·레터를 받아 인기 상승의 앤·머리는이번 CNE공연으로 1일공연 사상최고액인 10만 달러를받는다.

그녀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것은 78년부터 이다. 그녀가명성을 얻는데 중요한 역할을한 사람은 매니저 렌·랭뷰로 앤·머리의 목소리와 이메이지를 사람들에게 가장 잘 어필할수 있는 모양으로 다듬었다.

앤·머리는 3번의 그래미(Grammie)상과 16번의 쥬노(Juno)상을 탔다.

인기상승과 아울러 그녀는 영화출연, 광고모델등으로 분주하다.

그녀가 국제적 가수로입증해 주는 실예로, 가보지도 않은 호주에서 그녀의 앨범이 날개돋힌 듯이 팔리고, 심지어 일본에서는TV 껌 광고의 모델로도 나오고 있다.

전직 체육교사인 앤·머리는 수수한 이메이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있는 반면, 미국의골든타임 TV쇼에 출연하는 기회를 놓치기도 한다. 그러나 앤·머리는 이런것에 신경쓰지 않는다.

그녀는 지금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가질수 없는것을 안타까와 하고 있다.

한번은 큰아들 윌리암(5)이 친구들과 놀다 자기어머니 앤-머리가 지나가는 것을보고 "너희들 재가 누군지 알어 앤·머리야"하는 소리를 듣고 앤·머리는 "윌리, 제발 그러지 말어" 하고 울먹였다.

◇북미를 비롯, 일본, 호주에서까지도 명성을 떨치고 있는 앤·머리의 망중한(忘中閑)

# 런던팀 실력 과시

## 토론토팀에 파죽지서

(런던 김상귀지국장) 런던한인회 주최 제2회 도시별 한인축구대회가 22일 낮 12시 키튼스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3개팀이 참가한 대회에서 런던청소년축구팀은 토론토의 이글스팀과 청솔팀을 9:1 2:0으로 각각 격파 우승을 차지 했다

이글스는 패날티·킥으로 1점을 얻었을 뿐이다

런던팀의 김을재주장은 이날 "런던팀은 토론토에서 항상 푸대접을 받았다 우리는 우리의 진가를 나타내기 위해 이글스를 봐주지 않고 끝까지 뛰어 9점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선수는 토론토 대회의 푸대접을 "심판의 불공정" 등이라고 말하고 이때문에 런던팀들은 토론토대회에는 더 이상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기시작전 하광용 한인회장의 개회사 박영철 부총영사의 축사 전년도 우승팀 청우회(현 청솔팀)의 우승컵반환등이 있었다

토론토총영사관은 금일봉을 전했다

마광훈 한인회이사는 이날 모인 200명 교민들에게 불고기 점심을 단독 부담 제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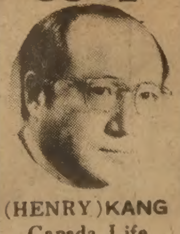
◇런 던 : 청 솔=2:0
이글스 : 청 솔=1:3
런 던 : 이글스=9:1

◇최우수상 런던 나명돌(5골)
공격상 청솔 박원모
수비상 이글스 김우일

◇L. A. 「용규무도도장」의 서용규관장이 두발차기 시범을 보이고 있다. 서용규사범은 태권도와 합기도가 각각 7단이며 L. A. 에서 새로 도장을 열었다.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생명보험



(HENRY) KANG
Canada Life
12년간 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Addison
BUICK
PONTIAC
CADDILLAC
Cadillac

원 재 훈

새차와 중고차 LEASING

1) GM의 각종 모델 700여대의 스탁
2) G. M. C. 경량급 VAN, TRUCK 일체취급
3) 최고의 TRADE-IN
4) 1년 보장의 USED CAR
5) SERVICE EXELLENCE

ADDISON BAY at COLLEGE
(B) 964-3211 Howard Won

서울행단체 매주출발
IATA
저렴한 요금의
●국내항공표일체 ●각종관광여행
●국제항공표 일체 ●각종 CREDIT카드 환영
컴퓨터 시스템으로 신속처리
신용과 경험과 책임성있는
여러분의 여행사!!
가장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여행사
598 BLOOR ST. W. TORONTO
(B)531-4607 (R)487-8088
성낙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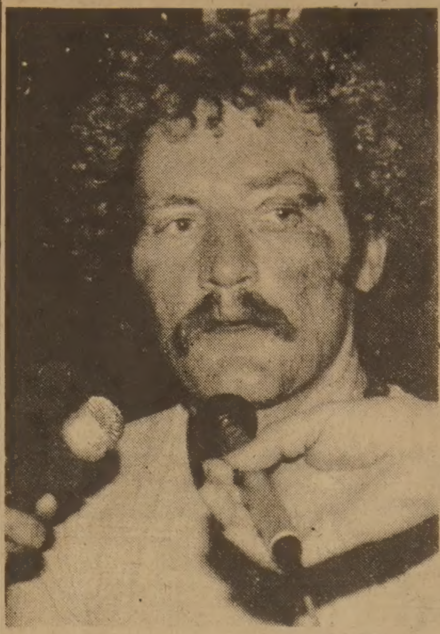
제1회
바시티배 쟁탈야구대회

일 시 : 9월5일 오전 9시
장 소 : 센테니얼 팍 야구장
신청장소 : ⊙바시티 운동구점(967-7304)
⊙박재선씨(755-6434)
⊙조용덕씨(423-3251)
참 가 비 : $50 (팀당)
주장회의날자 : 8월28일(금)하오8시
(바시티 운동구점)
주최 : 바시티 운동구점(이건영)
후원 : 민중신문사·코리아 저널·대한체육회
쌍방울 메리야스·미도파 선물센타
SUN-LIFE (윤호영)
국 제 상 사
●심판위원 : 박재선, 박센디, 김경서, 문영환, 김문량, 조용덕, 김계일, 천경호, 박홍일, 박세영, 장인배, 윤호영, 최이락, 조동식, 정세용, 김은하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H45

# 캐나다 소련도 물리쳐 3：2
## 하키 6개팀 본선



◇소련과의 열전후 기자들과 얘기하는 래디·로빈슨소련선수의 스틱에 맞아 눈밑에 상처를 입고있다.

「캐나다 컵」쟁탈 세계하키선수권대회를 3일 앞둔 캐나다대표팀은 29일소련과의 마지막 연습게임에서 3：2로 승리했다

에드몬턴에서 열린 이날 경기에서 캐나다는 전반적으로 소련을 압도했다 골리 마이크·루의 선방과 명수비수 래리·로빈슨의 활약은 60분간 계속해서 소련의 공격페이스를 무디게했다

로빈수은 소련팀의 날카로운 공격을 막았을 뿐만아니라 첫골을 성공시켜 기염을 토했다

게임후 소련팀의 부코치 율지노프는 "캐나다선수들의 기술은 놀랄만하다 그러나 웨인·그레츠키는 그렇게 막기 어렵지 않았다 그보다 수비 로빈수의 공격이 더욱 무서웠다"고 말했다

연습경기 스케줄을 모두 끝낸 각팀들은 본선을 위한 마지막 선수선발 (23명 엔트리)작업과 작전구상에 여념이 없다

한편 퀘벡시에서 열릴 예정이던 본게임은 오타와로 옮겨졌다 퀘벡시민들은 퀘벡·노르딕의 대표팀 탈락에 항의 경기 보이코트 운동을 펴 입장권이 거의 안 팔렸기 때문이다

경기스케줄과 장소는 다음과 같다

9월1일
스웨덴：미 국 (현지시간) (에드몬턴)하오 2시
소 련：체코(위니펙) 4시
*캐나다：핀랜드 (에드몬턴)하오 6시

9월3일
체 코：핀랜드 (에드몬턴)하오 2시
스웨덴：소 련(위니펙) (위 니 펙)하오 4시
*캐나다：미 국

9월5일
스웨덴：핀랜드(위니펙)
소련：미국(에드몬턴)
*캐나다：체코(위니펙)

9월7일
*캐나다：스웨덴(몬트리얼)
체코：미국(몬트리얼)
소련：핀랜드(위니펙)

9월9일
스웨덴：체코(오타와)
핀랜드：미국(몬트리얼)
*캐나다：소련 (몬트리얼)하오8시

9월11일
*준결승 오타와 하오5시
*준결승 몬트리얼 하오8시

9월13일
*결 승 몬트리얼 하오8시

*는 T.V.방영되는 게임 CTV(CH8)에서 생방송할 예정임

## 교 민 동 정

◆박대현·홍성표(메트로·패케진 경영)=새로운 직종인 상품용 공급사업을수개월간 경영하다가 사정으로 9월1일부로 문닫고, 보다 참신하고 의욕적인 사업을 구상중이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416)533·2361

## 9월18일출판기념회 「고향에 못갈지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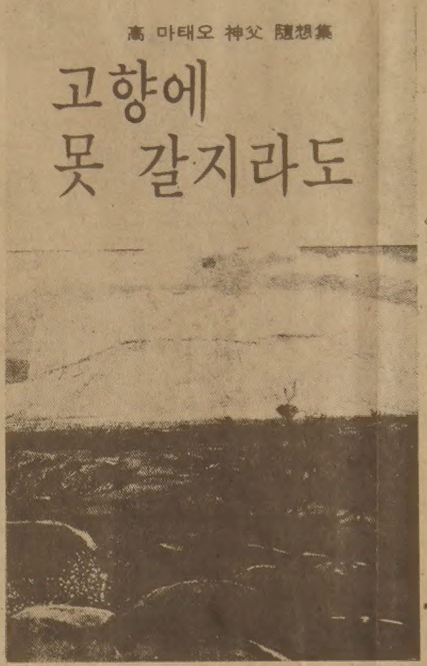
성직자 작가로서 수권의 저서를 낸바있는 토론토한인천주교회 주임 고종옥(마태오)신부가 수필·콩트집〈고향에 못갈지라도〉를 한국에서 출판, 오는 9월18일(금)하오 7시 토론토의 900 욕밀의 프린스호텔 프린스·볼룸센터에서 출판 기념회를 연다. (〈캐너더뉴스〉4월 25일자 참조)

고신부는 이미 자전소설 3권(제1부〈사랑의 지도〉·제2부〈예수없는 십자가〉·제3부〈이세상의 이방인〉)을 서울 가톨릭출판사에서 냈고, 이번책도 같은 출판사에서 지난 3월 출판했다.

고신부는 현재 자전소설 제4부작〈저 세상의 이방인〉을 집필중이다.

4×7판 323면, 값 $7 인〈고향에 못갈지라도〉에는 제1부 "주님의 목장에서"(23편의 수필·콩트)와 제2부"너와나(12편의 저자및 친지들의 글)가 실려있다.

이번 출판기념회는 교민사회 유지들의 발기로 칵테일파티를 겸해 열린다.




◇고신부 수상집 표지

〈매일연재 소설〉

##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51)

팔리·모왓 원작, 천 재 훈 옮김

그러나 이 사람들과 내가 더욱 친해질수 있는기회도 오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마지막남은 여름 한달동안 프란쯔를 따라서 600마일을 카누를 타고 브로체트까지 갔다가 윈디베이로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다 캠프에 양식이 떨어져서 긴급한문제이기도 했지만 프란쯔가그 전해에 잡은털을 처분하고 겨울준비를 해가지고 와야했다. 거의 낡은 화물용 카누를타고 그때의 길고힘든 여행은 여기서 아직설명하지 않았지만 레인디어레이크의 무역소인 브로체트에서 늙은 백인영감을그는 바렌이 시작되는 북쪽의 산림에서 아직도 상당히 많은 이할미우트 사람들과 무역을 하고있다는이야기를 들었고, 이것은 후에 기술할 것이다.

그 영감으로부터 이제거의 잊어버린 옛날이야기를 들었고, 한참후의 일이지만 똑같은 이야기를 이할미우트 사람들한테 직접 들었다.

브로체트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바렌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불같이 일어났었지만 1947년그 당시에는 이 욕심이 실현될수 없음을 깨달았다.

브로체트에서 이미 까맣게 잊어먹은 멀리 남쪽에서 올라온 라디오 메세지를 받았다. 이 메세자는나의꿈을 잠시동안 산산조각이 나게 만들었는데 토론토로 긴급히 내려오라는것이었다. 동시에 죠니·보라소가 서부바렌에서 없어졌다는 통지도 받았다. 이것은 내가 요령껏 그 평원에서 혼자의 힘으로 빠져 나오라는 메세지 였다.

프란쯔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을할수 없기 때문에 돌아오는 여행이 끝나면 나와함께바렌을 떠날것을 약속받고윈디베이로 함께 돌아왔다.

늦은9월 차마 떠나기 싫은것을 참고 우리들은 카누를타고 동쪽으로 여행을 시작했다. 6주후에 우리는 처칠에 도착해서 거기서부터 남쪽으로 내려가는 머스케그 특급열차를 탔다.

처칠에서 몇일묵은 후에 프란쯔는 비행기로 윈디베이로돌아갈 예정이었는데 운명은 그를 더오래 붙잡아 놓았다. 처칠에서그는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의늙은 아버지는 그를 못가게했다. 그의 아버지는 윈디베이의 집을닫고 개썰매를 이용해서 될수록 빨리 돌아와 공사장의 노동자로일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프란쯔의 아버지는 바렌에서 짐승을 덫을놓아 잡고, 또 무역을 하는 시기는 이제 끝이났다고 판단했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이 없어져 가고있는 사실을 알고있는 그의 결정은 나무랄수 만은 없는 일이었다. 살아있는 극 소수의 에스키모들과 무역을 해서 돈을 번다는것은 더이상 기회가 없고, 특히 흰여우 가죽의 시장가격이 또다시떨어졌기 때문에 윈디베이에 남아있는 것은 쓸모없는일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그 다음해가 시작 되면서 바렌으로 찾아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모두 끊어졌고, 윈디베이의 집은 또다시찬바람에 닫겨져 문이 닫혀버렸다.

이할미우트 사람들은 반기며 도와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백인을찾아 남쪽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안되었다.

프란쯔와 동생은 두에스키모아이들을 데리고 처칠에서 다시 가족과 합세하게 되었다.

그 후에는 이들중 아무도 뉴엘턴 레이크로 돌아가본 사람이 없었다. 육지와 강에서 살던 사람들과 거래를 해서 잘살게 되고 빼돌키운 백인들은 영원히 도망치고 말았다.

그러나 그들의 뒤에는구땅의 깊숙한 곳에서 도망갈곳이 없는 이 사람들은 홀로남아 있었다. 왜냐하면 돌무덤 밑의 강가 말고는 이들에게 피난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돈때문에 관심을두고 살았던 백인들은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과 땅을 헌 신짝처럼 내버렸다.

(계속)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 현 대 한 국 작 가 초 대 전
## (양로원 건립기금 모금을 위한 자선 전시회)

이 양 원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신인 예술상 수석상 수상
—국전 특선5회
—국전 문공부 장관상
—국전 입선8회
—각종 초대전 출품및 개인전
—현 한국미술협회 회원
일연회 회원

유 종 민
—서울미대 조각과 졸업
—서울대 교육대학원 졸업
—각종 초대전 출품
—국전6회 입선
—제3회 개인전 가짐
—각종 미전 심사위원
—현 관동대학 미술교육과장
한국미술협회 회원, INSEA한국회원

조 용 각
—서울 미대회화과 졸업(서양화)
—신인 예술 장려상 수상
—각종 국제대회 초대전 출품전및 개인전
—현재 한국미술협회 회원, 추계예술 조교수
제3구룹회원

권 승 연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1회특선)
—창작미협전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한국 현대작가전 신인상 수상
—제3구룹전
—한국현대 도자가 삼인전

한 풍 렬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서울미대 대학원 졸업
—대학교 강사
—관인 모뉴망 미술학원장
—경기도전 수석상 수상
—국전특선1회 입선6회
—각종 미전출품및 개인전2회
—중앙미술 내상전 장려상 수상
—현 한국미협회원, 일연회 회원

장 연 탁
—서울미대, 온타리오 미대졸업
—국전출품
—낙우회 회원전 출품
—이태리 마리노(로마)국제 비엔나레 출품
—이태리 카라라 국제조각 심포지움 참가
—이태리와 카나다에서 4번 개인전
—현 캐나다 조각협회 회원
●장씨 작품이 영구소장된 화랑
이태리 미라노 현대미술관
베니스 누오브 스파지오 화랑
토론토 가보 화랑
캐나다 조각협회

나 영 삼
—서울미대 회화과 졸업
—국전출품
—한국대상전 출품
—제1회 한·일 작품 교류전 출품
—미술회관 초대전 출품
—창작미술 협회전 출품
—한국미협전

장 소：THE SHERATON CENTRE WINDSOR ROOM(윈저화랑)
시 간：10월8일(목) 9일(금)：오후6시~9시30분
〃 10일(토) 11일(일)：〃 2시~ 〃
〃 12일(월) 13일(화)：〃 6시~ 〃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 "美機、北傀 再挑發땐 보복命令"

## "고의적일땐 應射공격" 미즈白堊館고문

【오클랜드(캘리포니아州) 28日AP=聯合】미공군기들은 앞으로 미SR71기에 대한 지난26일의 북괴미사일공격과 유사한 공격을 받을 경우 이에 응사하도록 명령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에드윈·미즈백악관수석고문이 28일 말했다. 미즈고문은 이날 가진 회견에서 美공군기가 SR71기와 같은 공격을 받을 경우 어떠한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것인가의 질문에 대해 미국의 잠재적적국에게 사전대비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는 우려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으나『SR71기와 같이 직접 공격을 당한 항공기자체 또는 지원기의 대응행동이 하나의 방안이 될수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미사일이 발사된 장소를 정확히 탐지하거나 보복공격을 하는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가정될수있다고 말했으나 이 방안은 미공군기에 대한 공격이 고의적이었다는 점이 사전 확인될 때에 한해서 강구될수 있는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래리·스피크스 백악관부대변인은 캘리포니아주의 산타바바라에서 가진 회견에서 미즈고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미즈고문은 레이건 대통령의정책을 반영하고 있다』고 만 말했다.

## 國務省성명 "飛行계속…安全措置도 강구" 再發없도록 中·蘇와 접촉

【워싱턴 27日=曺淳煥특파원】진·피셔 美국무성 대변인은『어제아침 북한이 한국과 공해 상공을 비행하던 미공군기 1대에 미사일을 발사한것을 이제확인했다』고 27일 국무성 정례기자브리핑에서 미리 준비된 성명을 통해 말했다.

피셔대변인은 이어『서울의 유엔군사령부가 1953년에맺은 군사정전협정의 위반사실을 북한에 직접항의하기위해 군사정전위의 소집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피셔대변인은『우리는 추가로 중공과 소련정부가 이 사건에 대한 우리의 깊은관심을 북한당국에 전달하도록 요구하고 북한이 이런 위험한 행동을 되풀이하지않도록 하기위해 中·蘇정부와 접촉하고있다』고 말했다.

피셔대변인은 이어『우리는 이 통상적인 비행을 계속할 의향이며 우리조종사들과 비행기의 앞으로의 안전을 보장하는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취할것이다』고 말했다.

피셔대변인은『中蘇양국은 북한과 우호협력조약을 맺고있다. 중공은 군사정전협정서명국이며 정전위원회 회원이다. 우리들이 이 사건을 평가하는 심각성을 북한에 강조하기위해 이들외교경로(中·蘇)를 사용하는것이 긴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피셔대변인은『이 비행은 이 지역에서 수년간에 걸쳐 행해온 통상적인 비행중의 하나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지난주 地中海상공에서 발생한 리비아공군기의 美海軍機공격사건과는 아무 연관이 없는것으로 美행정부는 보고있다고 말했다.

◇발사대에 적재되고 있는 샘Ⅱ.

### 美國務省 성명全文

【워싱턴27日AP·UPI=聯合】다음은 美SR71정찰기에 대한 북괴의 미사일 공격 사건에 관한 美국무성 성명의 전문이다.

우리는 북한이 26일상오 한국영공과 공해상공을 비행하는 美공군기 1대에 미사일을 발사했음을 지금확인한다. 이번 비행은 지난 수년간 이지역에서 실시돼 온 통상적인 비행가운데 하나였다.

미국정부는 국제법과 한국휴전협정,공인된 국제행동규범을 위반한 금번의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駐韓유엔군 사령부는 이같은 휴전협정 위반을 북한에 직접 항의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를 소집하도록 요구했다. 유엔군사측은 정전위회의를 29일(한국시간)에 열도록 요청했으며 아직 북한측으로부터는 아무런 응답이 없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중공과 소련이 이사건에대한 우리의 깊은우려를 북한당국에 전달하고 북한이 이같은 위험한 행동을 되풀이하지 않도록하기위해 중국과 소련정부와 접촉하고 있다. 양국은 북한과 우호협력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중공은 휴전협정 조인국이고 군사정전위원회의 일원이다. 우리는 이사건을 보는 우리의 심각성을 북한이 명심하도록 하기위해 이러한 경로들을 이용하는것이 절대필요한 것으로믿는다.

우리는 이러한 통상적인 비행업무를 계속할 것이며 장차 우리의조종사들과 비행기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다.

## 越南戰서 첫선 北傀 2백50基보유

### 샘Ⅱ미사일

북괴가 美정찰기 SR71공격에 사용한 것으로 보도된 SA2미사일(샘Ⅱ)은 최대속도가 음속의 3·5배, 유효고도18㎞의 무선유도중거리地對空미사일이다.

베트남전쟁때 월맹은 샘Ⅱ로 美B52기의 북폭에 맞서 큰효과를 보았다. 이스라엘-이집트의 전쟁때 이스라엘이 장비한 전자통제방식(ECM)이 이집트의 샘Ⅱ를 막아내는데 효과적임이 발견된이래 모델과 유도방식은 계속 개량되고있다. 북괴는육군3개여단에서 샘Ⅱ 2백50기를 45개기지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밖에도최대속도가 음속의 1·5배,최대사정거리 3·5㎞인저공용견탁식SA7(샘7)그레일 地對空미사일을 보유하고있다.

## "美정찰기 被擊은 중대한 挑發행위" 政府、美와 對應策 협의

정부는 北傀가 美정찰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을 韓半島의 安定을 위협하는중대한 침략 挑發행위로 간주, 北傀도발의 정확한 眞意를 검토분석하는 한편 美側과의 긴밀한 접촉을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협의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7일 駐美대사관을 통해 美행정부의 대응방안과 美국내여론을 보고받는 한편 28일에는 리처드·워커 駐韓美대사를 외무부로조치, 이번 도발에대한 정확한 진상과 필요할경우 美側과함께 취할 공동대응책을 협의한것으로 전해졌다.

## 美機 領空침범 攻擊否認 생떼 北傀주장

【東京28日AP=聯合】북괴는 28일 미국의 고공정찰기가북괴의 영공을 지난26일에침범했다고 주장하고 SR71機에 미사일공격을한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東京에서 청취된 북괴관영중앙통신은 이어 미국고공정찰기의 북괴영공침범은 미국에의한 해적행위라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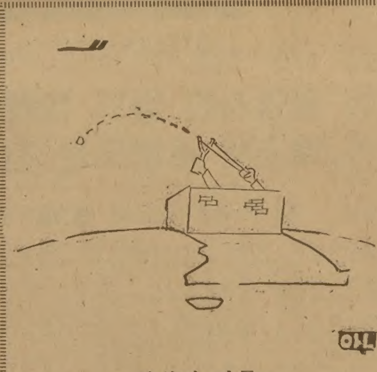
한편 방송은 미국방성에 의해 발표된 미사일공격사건은 한반도의 긴장격화를 노린 날조된 거짓이라고주장했다.

## 美國務省 한국課長 클리블랜드氏 임명

【워싱턴27日=聯合】알렉산더·헤이그美국무장관은 지난주 前駐韓미대사관 참사관이며 현재 국무성 타이완과장인 폴·클리블랜드를 한국과장으로 전보 발령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한편 前한국과장인 로버트·리치는 현재 다른 보직을 대기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社會漫評



세살적 버릇…

## 對日 強硬자세로 轉換하라 — 外務委질문·답변 "韓日관계 새출발轉機"

국회는 28일하오 外務委를 열고 盧信永외무장관으로부터 韓日外相회담결과에 대한 보고를듣고 앞으로의 對日정책등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의원들은 질의에서 이번외상회의를 통해 日本의 歪曲된 對韓우월자세와 함께 東北亞안정과 貿易逆調시정에 無誠意를 드러냈음을들어 強硬자세를 주축으로 對日정책을 全面재검토할것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李萬燮(국민) 朴定洙(議政) 任哲淳·金賢子(民正) 申鎭洙(民韓) 高貞勳의원(民社)등은 질의를통해『安保와 經協에대한 소노다日本外相의 발언은 植民地根性에서 나온것으로 비난하고『이런 極言을 外相회담개최전에 했는데도 회담을 취소하거나 연기하지않은 이유는 무엇이냐』고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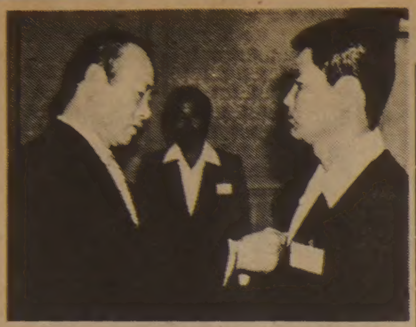
이들 의원은 또 60억달러 經協문제에대해 ▲安保와經協을 결부시킨 배경▲西歐나 미국에 公共차관을 요청하지않고 日本에요구한 이유▲日本이 계속 不應할경우의對策등을 묻고▲日本정부의 對韓인식 ▲정기각료회담의 전망 ▲앞으로 韓日관계의 전반적인전망과대책등을추궁했다.

盧信永외무장관은 답변을통해『이번 外相회담에서 소노다外相은 北傀의 위협에우리가 過重한 방위부담을 안고있다는 점을 새로이 인식했다』고 밝히고『그의 極言이 있긴했지만 회담의 취소보다는 어려움이 있더라도참고 상대방이 極言이전에 安保를위해 經協에 협조하겠다고한말을 실천토록하기위해 회담에임했다』고말했다.

盧장관은『日本은 성심성의껏 경제협력을 하겠다고약속했고 나도 그점을 믿고있다』고 말하고『60억달러의 對日經協요청은 우리의 安保부담이 東北亞 안정에 기여하기때문이며 미국이나 西方국가에 요청했다가 안되면日本에 요구할 성질의것은 아니다』고 답변했다.

★질문·답변요지2면

◆28일 국회外務委에서 韓·日外相회담결과와 소노다 極言등에 대해 의원들이 質疑,追窮, 糾彈하는 동안 盧信永외무장관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있다.



### 敬老善行 金鍾弼씨 全대통령이 表彰狀

全斗煥 대통령은 28일 상오 청와대에서 敬老善行者金鍾弼씨(44·강원 東草市 東明洞503)에게 대통령 표창을 주었다.(사진)

東草市 火葬場고용원인 金씨는 최근 死境을 헤매던 金東弼노인(75)을 자기집 단칸방으로 옮겨 간호, 소생시켰으며 그뒤에도 金노인을친부모처럼 보살피고 있다.

이날 표창자리에는 徐廷和내무 金容烋총무처장관과 兪俊時東草시장이배석했다.

### 第2政務 업무現況 全대통령 報告받아

全斗煥 대통령은 28일상오 청와대에서 盧泰愚政務제2장관으로부터 소관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았다.

이자리에는 南悳祐국무총리등이 배석했다.

## 設備투자에 重點지원 기술·人力개발엔 稅額控除制도

### 全대통령,「産業支援시책」특별指示

全斗煥 대통령은 28일「産業支援시책운용에 관한 특별지시」를 內閣에 시달, 설비투자의 촉진과 民間부문의기술및 人力개발을 촉진키위해 稅制지원을 강화하고 주요정부투자사업과 대규모 민간투자사업의 투자가 不實化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산업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강화하기위해 기획원에 産業정책審議會를 설치운영토록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이날 특별지시를 시달하면서『80년대의 어려운여건을 극복하면서 제2의 跳躍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운용의 능률을 높이고 경제체질을 강화해 경쟁력을 배양해나가야한다』고 강조하고『이를 위해서는 기술혁신과 人力개발을 촉진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이 있으며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에 설비투자가 촉진되도록 투자配分을 합리화하는것이 핵심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또『우리경제의 現與件에 비추어볼때 앞으로 개방체제를 굳건히 구축해 對外指向的인 전략을 계속 추구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해나가야하겠다』고 당부하고 기획원은 이들 지시사항에대한 細部실천계획을 조속히 수립,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라고 아울러 지시했다.

특별지시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쟁력있는 설비투자의 촉진을위해 ①설비투자 지원대상에 경쟁력이 있거나 상당기간안에 경쟁력확보가 명백한사업과 품질개선, 생산성향상, 에너지절감 및 流通근대화촉진을 위한 투자를추가하고 ②설비투자에있어 국산기계를 사용한경우 優待하도록하고 景氣변동에따라 지원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있도록 제도화할것.

▲기술및 人力개발 촉진을위해 ①기술개발 지원대상을 확대, 민간의 연구기관 설립운영, 기술개발용역비, 기술諮問費, 기술정보획득, 도입기술개발, 연구기관 출자 또는 출연및 국내외 특허권 획득을 위한 경비를포함토록하고 이 경비지출에 대해 稅額控除제도를 신설하는등 지원을 강화하며 ②人力개발 투자지원대상을 확대, 직업교육훈련기관 설립운영, 직업훈련분담금및 국내외 훈련기관 위탁교육을 위한 경비를포함토록하고 이경비지출에 대해서도 稅額控除제도를 신설하며 ③소득세 免稅를 일반기업이 외국인 기술자를 고용한경우에도 적용될수있도록 확대할 것.

## 南總理 北歐순방길

南悳祐국무총리는 스웨덴, 덴마크,핀란드, 벨기에등 유럽4개국과 歐洲共同體(EC)본부를 공식방문하기위해 부인 崔惠淑여사와 李範錫통일원장관등 공식·비공식 수행원을 대동하고 28일밤9시 대한항공편으로출국했다.

정부는 이날 金浦공항에서 申秉鉉부총리, 盧信永외무, 金容烋총무처장관, 파란즈메駐韓외교사절단장(印度대사)과 巡訪4개국및 英國, 프랑스대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소한 환송식을 가졌다.

## 地平線

우리가 쓰는 단위중에는 사람 이름을딴것이 종종있다. 어떤 과학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연구에 관련된 단위에 그 과학자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엑스광선의 단위는 엑스광선을 발견한이의 이름을 따 뢴트겐, 방사선의 단위 역시 발견자의 이름을 붙여 퀴리.▼전기관계의 단위도 마찬가지다. 가장 흔히 듣는 와트라는 단위는 증기기관차의 발명자인 영국인 제임즈·와트의 이름이다. 중학교 물리시간에 배웠던 電流의 단위 암페어는 프랑스의 물리학자 앙드레·마리·암페르의 영어식발음. 電壓과 관계되는 볼트도 사람 이름에서왔다. 그러나 볼트는 약간의「말썽」이 있다.▼어느 중학교의 물리 시간이다. 교사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느라 언성을 높인다. 『볼트는 영국의 물리학자 볼트의 이름을 딴 것인데…』그러자 한 학생이 손을들었다.『선생님 볼트가 아니라,볼타입니까』 분명히 학생말이 옳다. 볼트는 이탈리아의물리학자 알렛산드로·볼타의 이름을 딴 것이다. 그는 이른바「볼타의 電池」를 발견한 근대 전기학의 선구자다.▼어떤 경위로 볼타가 영어투의 볼트로 됐든, 난처해진 것은 앞서의 물리교사다. 그는 이렇게 눙쳐 버렸다.『그사람 영국으로 이민을 간모양이지』. 그러나 그 교사를 망신시킨것은 사실은 교과서다. 어느해 교과서에 볼트라는 물리학자가 등장했고,그이듬해에는 그 잘못이 고쳐졌다. 그 교사는 낡은교과서를 들고있었고,학생들은 새로나온교과서를 갖고있었다.▼흔히들 교과서처럼 권위있는출판물은 없는것처럼 생각한다. 적어도 기초지식에 관해서는 그래야 한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못하다. 한두해 전에는 중학교1~3년 과학교과서중에 잘못이 4백96군데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더구나 다른 학과의 意味內容·서술방법까지 종합한다면그 시비는 한없이 충족될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초라한 체재는 가장 보잘것없는 출판물이라하여 잘못될것이 없다.▼마침 출판문화협회등이 주최한 교과서 세미나가 열려, 교과서의 문제점이 논의되었다고 한다. 지적 할것이야 한둘이 아니겠지만,「國定」위주로 되어있는 우리 교과서의 편찬제도는 따져볼 가치가 있다.「國定」이란 것이 개편을 죽먹듯하며,「維新」이나 넣었다,뺐다하는 것이라면,더욱 그렇다. 참고삼아 우리가 교육세로 부담할 교육재정(82~86년)중 교과서개편과 공급비용은 자그만치 1천1백16억원이나된다.

구독신청은 (416) 533·2361

ROL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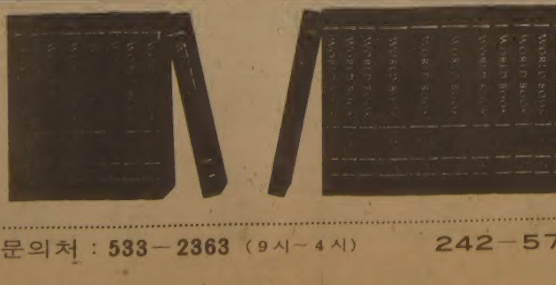
결혼·약혼 예물은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 온스당 US 407
은 : 온스당 US 8.8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534-7791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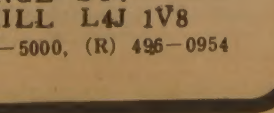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부동산 매매
※바라이어티 스토어
주매상 3천불
ALL OPEN, SHORT HOURS.
원래 주매상 4천5백달러. 시간 단축과 건물 요일 단축으로 매상이 줄었음.
스토어 앞에 큰 아파트가 새로 서고 있음.
이층에 2 베드룸 아파트와 베첼러 아파트가 있음
ASKING 2만5천달러
부인이나 노인 혼자 운전할 수 있고 부부가 같이 근무 할때는 매상이 크게 향상 될 것임.
이윤이 많음
신용을 본위로 하는 이훈모 부동산을 찾아 주세요.
☎ : 221-2084, 633-6813
(4975 YONGE ST. AT SHEPPARD ST)
이훈모 부동산회사

World Book-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 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
World Book 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챠트 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 533-2363 (9시-4시) 242-5774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GM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 南阿共機, 앙골라 無差別폭격

## 침공 3일째 民間人다수死傷…軍基地파괴

## 地上軍도 領内40㎞進入

### 兩軍공방전 갈수록熾烈

◇黑人兵士에 作戰지시하는 南阿共軍장교
南阿共 보안군부대의 백인장교가 흑인 병사들에게 작전 지시를 하고있다. 【에스프로키스誌】

【루안다·리스본27日AP AFP=聯合】 南아프리카공화국의 앙골라침공에 대한 세계적인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南阿共전투기들은 침공3일째인 27일 남부앙골라성도 엔지바를 무차별 폭격했으며 이도시외곽지대에서는 南阿共군과 앙골라군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앙골라국방성이 이날 밝혔다.

또한 앙골라관영 안고프통신은 정부발표를 인용, 앙골라軍이 앙골라경내로 침공해온 남아공군 헬리콥터기 1대와 전투기 1대를 격추시키고 탱크 1대를 파괴하는등 남아공군에 일대 타격을 가했다고 보도했다.

앙골라국방성은 이날 남아공군은 앙골라 나미비아접경에서 40㎞나 앙골라영내로진격, 현재 쿠네네성도 엔지바에서 불과 17㎞떨어진 외곽지역까지 육박해왔으며 이지점에서 앙골라군과 치열한공방전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성 성명은 또 앙골라전투기들이 엔지바부근의 앙골라군 기지와 엔지바市에다 맹렬한 무차별 폭격을 가해 많은 민간인사상자와 시설물 피해를 남겼다고 밝혔다.

한편 안고프통신은 전세계의 비난과 앙골라軍의 완강한 저지에 부딪친 남아공은 이제 적절한 군대철수시기를 찾고있다고 주장했다.

앙골라정부는 또한 루안다주재 서방국대사들을 초청, 南阿共軍이 침공한 지역을직시찰, 현지 상황을 둘러보도록한것으로 알려졌다.

### 앙골라人투쟁 支持 / 가다피, 南阿共비난

【파리27日AP=聯合】 리비아국민은『남아공화국 인종차별주의자들의 앙골라침공을 격퇴하기위해 앙골라와 더불어 싸울준비가 되어있다』고 가다피 리비아국가원수가 산토스 앙골라 대통령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말했다.

### 오늘 유엔安保理소집

【유엔본부27日AP=聯合】 유엔안보리회원국들은 26일밤의 비공식회의에서 남아공의 앙골라침입을 논의하기위한 긴급안보이사회의를 29일 상오5시(한국시간) 소집하기로 결정했다.

앙골라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이번안보리회의는 엘리시오·데·피구에이레이도 유엔주재 앙골라대사의 상황설명을 들은뒤 남아공의 앙골라침입에 대한 유감표명과 함께 남아공군의 즉각철수를 결의할것으로 보인다.

### 南阿共·앙골라衝突 / 美, 政治的타결모색

【산타바바라(美캘리포니아州)27日UPI=聯合】 미국은 南阿共和國·앙골라간 분쟁의 정치적타결을 모색하고있으며 앙국간의 충돌사태가 확대된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있다고 래리·스피크스美백악관부대변인이 26일말했다.

스피크스부대변인은 쿠바군이 앙골라에 진입한 南阿共軍과의 전투에 투입된다면 미국은『이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지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 國務省이 떠맡은「北傀미사일挑發」

## 美행정부, 「軍事보복」대신 「外交問題化」

## 리비아機 격추때완 對照的 / 時間·위치등 구체發表없어

【워싱턴28日=曺淳煥특파원】 美해군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리비아공군기의 지난주 격추 사건과 이번 북한의 지대공 미사일 발사사건에 美행정부는 다른 양상의 반응을 보였다.

리비아공군기 격추사건에 대해서는 국방성이 도맡아 전면에 나서 발표했으나 북한의 미사일공격에 대해서는 국방성은 거의 모든문제에 논평을 회피, 후면으로 물러서고 국무성이 진면으로 나섰다.

미국방성은 일주일에 두번(火·木요일 상오11시30분부터) 기자들에게 정례브리핑을 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다음날인 27일이 木요일이어서 이날의 브리핑에는 기자들이 보통때보다 3배나 모여들었다. 하지만 국방성의 헨리·캐토대변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자들의 질문에 「논평회피」를 되풀이했다.

미해군기 F14기가 소제SU22기 2대를 지중해상공서 격추했을때는 미즈 백악관고문이 대통령에게 이사건을알린뒤 불과 15분후가 되는 아침7시45분(동부표준시간) 와인버거 국방장관이 국방성서 기자회견을하고 사건의전모를 공표했었다.

리비아공군기격추사건이일어난지 불과 6시간만에 국방장관이 모든것을 백일하에공표한것이다. 그때 기자들은 레이건 대통령에게 사건이일어난지 거의6시간후에 통고한것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발사사건은 이사건이 일어난지 7시간후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고만 국방성이 간단히발표했다.

국방성의 공식발표 20시간후에 열린 27일 국방성기자브리핑에서 캐토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분명히SR71미군기를 향해 쏜거냐는 질문에도 『그렇게 보인다』는 정도로 답변하고 확인하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시간도 26일 아침이라고 한뿐 몇시몇분이란걸 리비아공군기 격추때와는 달리 밝히지 않았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때 SR71기가 어떤지점을 비행하고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다만 북한 영공이 아니라 한국영공과 공해상공을 비행했다는 말만 캐토대변인은되풀이했다.

SR71기가 서해상공을 비행했다는 것도 국방성대변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NBC·TV방송에서 보도된 것이다.

북한이 미군기를 겨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한것도 국방성이 아니라 국무성이었다. 27일 낮12시20분(미동부표준시간), 그러니까 국방성브리핑보다 50분늦게 시작한 국무성기자브리핑에서 이사건에대한 미국정부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공표됐다.

NBC·TV 저녁뉴스방송은 이사건을 간단히 보도한 전날과는 달리 톱뉴스로 보도하고 「앵커맨」은『리비아기의 미사일발사에는 미군기가 군사보복을 가했으나 이번 북한의 미군기에 대한 미사일발사에는 군사보복을 취하지않고 외교적으로 이문제를 끌고가고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미국언론에서 외교문제보도로 명성과 관록을 쌓은 NBC·TV의 마빈·칼브기자는『미국이 북한의 불법적행위를 조심스럽게 비난하고 이사건의 심각성을지적했으나 공식항의는 유보했다』고 보도했다.

칼브기자는『이사건을 심각하게 보는 미국의 입장을 북한에 전달하도록 중공과소련정부에 요구했으나 특별한 경고를 뜻하는것은 아니라고 국무성대변인은 말했다』고 전했다. 칼브기자는 이어『북한의 미사일로서는 고성능SR71기를 격추할수가 없을것같은데 왜 미사일을 쏘았는지 이해하기 곤란하다고미행정부관리들은 지적했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항의」를 대신한 피셔 국무성대변인의 비교적 진성명문은 그런대로 강경한것으로 풀이할수 있다. 이성명문은 ①미사일발사사건을 심각하게 본다 ②SR71기의 비행은 앞으로도 계속한다 ③SR71기 비행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어떤 조치도 취한다 ④북한에 미국의 입장이 전달되도록 中蘇에 요구한다는것을 담고있기때문이다.

미국이 이성명문에 중공과 소련을 명시한 것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탓도있지만 북한의 미사일발사 사건을 「독립된 행동」으로 미국이 보지않는다는 뜻을 암암리에 담고있다.

# "大統領결단은 필요없었다"

## 白堊館 SR71機사건報告지연에言及

【산타바바라28日UPI=聯合】 레이건美대통령은 동해상공에서 SR71 미고공정찰기가 북괴의 미사일공격을받은 사실에대해 사건발생 8시간반만에야 보고받았으며 미국정부관리들은 대통령에대한 보고가 이같이 늦어진데대해 초기에는 상황판단에 필요한정보가 충분치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있다.

래리·스피크스 백악관 부대변인의 27일 발표에따르면 북괴미사일 포대의 발포시간은 26일 하오4시30분(한국시간 이하같음) 이었으나 레이건 대통령이 보고를 접한 시간은 다음날 상오1시로서 꼭 8시간반이 지체된 것이다.

스피크스 대변인에 따르면 에드윈·미즈 백악관 수석고문조차도 이사건에관한 첫보고를 레이건 대통령이 접수할때쯤에야 비로소 접한것으로 돼있다.

레이건 대통령에 대한 보고가 그같이 오래 지연된데대해 미즈수석고문은 국방성으로부터의 구체적보고가충분치 못해 상황판단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미·리비아 전투기격돌사건이 빚어진 지난주에도 레이건 대통령이 이에 관한 보고를 접한것은 사건이 발생한지 6시간후였다.

스피크스 대변인은 레이건 대통령이 북괴미사일포대의 공격사건에 관한 보고를 받으면서 보고의 시간성에대해 만족해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는 이사건은 이제 끝났으며 후속사건은 전혀없었다고 논평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군부에 의해 통제적으로 처리됐으며 대통령의 결단은 필요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 유엔總會서 연설 / 레이건, 10월초에

【산타바바라(美캘리포니아州)27日UPI=聯合】 아직 외교정책 연설을 한 바없는 레이건 대통령이 올가을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할계획이라고 백악관보좌관들이 27일 말했다.

# 시나이에 多國籍軍 파견

## 埃에 定着村·시설물 引渡

### 이-埃합의

【알렉산드리아(이집트)27日UPI=聯合】 이집트와 이스라엘은 27일 오는 82년 4월25일로 예정된 시나이반도로부터의 이스라엘군의 최종적 철군계획과 관련, 시나이반도내의 이스라엘정착촌등 기타 모든 시설물을 이집트측이 인수하고 무역, 관광, 민간항공등 여러분야에서의 양국관계정상화를 가속화하며 이스라엘군의 최종철수 1개월전 다국적군을 시나이반도에 진주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집트 이스라엘 양국간의 이같은 합의는 팔레스타인자치문제협상을 오는 9월중순에 재개키로한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베긴 이스라엘수상간의 2일간의 정상회담이 끝난지 하룻만에 열린 양국각료급회담에서 이뤄진것이다.

### 蘇, 印에 미그25機 18臺제공 / 最新전투기…一名 폭스배트

【뉴델리27日AP=聯合】 소련은 일명 폭스배트로 알려진 최신예제트전투기인 미그25機 1개비행대대(인도의경우, 보통18대)를 인도에 제공했다고 한 인도국방성관리가 27일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는 미그25機가 언제 인도에 제공되었는지 상세한 내용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인도의 미그25機확보는 전통적으로 인도의 군사적 라이벌인파키스탄에美製F16제트전투기들을 판매키로한 美國의 계획이 발표된뒤 밝혀진 것이다.

앞서 인디라·간디수상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F16전투기들을 판매할 경우 파키스탄은 인도보다 유리한 側面능력을 확보하게 될것이라고말한바있다.

한편 美관리들은 간디수상의 이같은 발언을 부인하면서 인도가 세계제4위의 군사강국이라고 강조했다.

### 日, 82年 방위비 2兆6千億엔

【東京27日=聯合】 일본방위청은 27일 F15전투기 43대와 P3C對潜水艦초계기 17대를 포함, 대량 발주하는등 방위장비와 유사시 즉응태세강화에 역점을 둔 총규모 2조5천8백1억엔(약1백12억달러)의 82회계연도 방위예산요강을 최종확정했다.

한편 自民黨은 이날 이같은 방위청의 예산요강을 승인했다.

내년도 방위예산의 최대폭 징은 전년대비 7.5%증가율을 고수하기위해 국고채무부담등의 이른바 후년도부담액이 전년도보다 67%나 급증한 2조2천3백억엔에 달함으로써 『배보다 배꼽이 더큰』 이상상태를 노출, 결국 방위비의 GNP1%유지원칙이 가까운 장래에 철폐되지 않을수 없는 현실임을 증명한 것이다.

이처럼 채무행위가 본예산에 필적하는 규모로까지 늘어난것은 7.5%상한선을 고수하면서 미국의 압력에 발맞추어 방위력 증강을 강력히 촉구하는 자위대및 자민당 재계등 우파의 요구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있다.

# 土星 근접寫眞은 어떻게 보내왔나

## JPL韓國人과학자 朴영호博士에게 듣는다

◇美우주탐색선 보이저 2號가 지난25일 보내온 土星의 7개 위성을 합성한 사진。이 위성들은 10㎞ 또는 수백㎞씩 떨어져있다. 【로스앤젤레스28日 AP電송=聯合】

## 촬영사진 일단 自體디지털에 저장

## 地上서 送信조정…전파 百萬倍증폭

### 지구국3개소서 受信·自轉영향 안받아

【패사디나(美캘리포니아州)28日=로스앤젤레스支社 朴瑛기자】 보이저2호의 토성최근접 랑데부가 28일(현지시간) 끝남에 따라 패사디나 제트 추진연구소(JPL) 보이저 프로젝트팀은 오는86년으로 예정된 천왕성탐색에 성공할수있느냐에 관심을 쏟는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카메라받침대(方向臺)고장이 미칠영향을 놓고 신경을쓴게 역연했다.

JPL커뮤니케이션분야에서 일하고있는 한국인과학자 朴영호박사(35)는 『현재 카메라 플랫폼고장으로 원하는 사진일부를 못찍고 있지만 다른 방법이 아주 없는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朴박사에 의하면 플랫폼을 움직여 2개의 카메라를 회전시켜가며 사진을찍는대신 플랫폼이 고장난경우 우주선전체를 움직여사진을 찍을수도 있다는것이다. 그러나 사진을찍어 지구로 전송할때 안테나의방향을 다시 지구쪽으로돌려야 하기때문에 연료가 훨씬 많이 들게 된다.

이렇게 예상외의 연료가 소모되면 86년의 천왕성、89년의해왕성 탐색계획에 차질이 생길수도있어 아마 이방법은 쓰지않고 있는것 같다고 朴박사는 설명했다.

천왕성과 해왕성 탐색성공의 가능성은 고장이 생기기전인 26일상오 기자회견에서 에드·스톤박사가 각각 60%와 40%라고 추정한바 있었다.

이들 보도진에게 제공된 사진중 가장 찬탄을 받은 것은 토성의위성 다이탄의 밤사진.

보이저2호의토성접근이 마무리되는 28일까지 2개의 보이저가 목성과 토성및 그들의환과 위성을찍어 지구에 보내는 사진은 모두 7만여장.

朴박사는 보이저에서 사진을 보내오는 과정을 다음과같이 설명했다.

우선 보이저2호에 부착된 카메라가 사진을 찍은후 그영상을 디지틀(숫자)로 바꾼다. 그러면 무선주파수 시스팀이 이를 변조하여 접시형의 고성능안테나(직경3·7m)를 통해 지구로 보낸다.

지상에서 이를 수신하는 곳은 모두 3군데。지구를 대강 3등분한 지점인美캘리포니아의 골드스턴、스페인의 마드리드、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에서 각기 직경64m의 안테나로 이를 수신한다。지구가 자전해도 그중 한군데는 수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세장소는 JPL이 설계운영하고있는 宇宙深層추적망(Deep Space Network)의 지구국이다.

보이저2호에는 항상 지구쪽을 향하게돼있는 超指向性안테나로 송신한것을 지구국에서는 직경64m짜리 거대한 안테나를 이용、전파의세기를 1백만배로 증폭한다. 20억㎞거리의 토성에서 보이저2호가 수집한 자료를 선명하게 받아볼수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한편 보이저2호가 수집한 각종자료는 즉시 지상으로 송신해 오지않는다. 송신에 앞서 탐색선은 자료를 일단 디지틀영상으로 자료기록장치에 수록한다.

수록된 정보는 지상국의 전파명령에 따라 보내게된다.

수록된 디지틀영상들은 마이크로·웨이브 링크나 정지위성을 거쳐 JPL로 보내진다.

JPL의 통제본부(MCC)에서는 디지틀로 받은 정보를 원래형태로 바꿔 생생한 토성의 모습을 TV스크린에 나타낸다.

## 메아리

21일동안에 걸쳐 벌어진 고교야구에 48만여명의 관중이 몰려들었다. 그라운드엔 연일 쉴새없이 환성이 울려퍼졌다. 48만여명이라면 미국이 열광하는 프로야구 월드시리즈의 관객동원과 거의 엇비슷한 놀라운 숫자다.

지난26일 야간경기로 화려하게 펼쳐진 봉황대기고교야구 결승전은 순간마다 긴장의 연속이었다. 구장에 못나온 사람들은 텔리비전수상기 앞에서 경기의 황홀감에 잠겼었다. 고교야구의 폭발적인 인기를 새삼 실감케했다.

그라운드엔 지금 정적이 깃들였으나 결승전의 흥분과 화제는 가시지를 않는다. 승패를 떠나 이게임에선 「상처입은 스포츠영웅」이 태어났다. 최선을 다하고 골절상을 입은 朴魯俊선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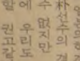
어떤 경기에서나 선수의 부상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연이지만 금년봄 일본고교야구 전국대회 선발전에서도 베이스 러닝을 하던 선수가 골절상을 입는 일이 일어났다.

2루에서 3루를 돌아 홈으로 달리려던 선수가 그만 발목뼈가 부러져 주저 앉아 버렸다. 운동장에 나와 있던 의사는 이 선수의 뼈가 약했기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일본에선 청소년의 뼈가 약해진것은 「美食시대의 산물」이라고 크게 화제를 일으켰다.

도시어린이들은 부모의 과잉보호와 밀집생활 탓으로 맘껏 뛰놀지를 못한다. 게다가 인스턴트 식품등 맛있는 음식만 골라 먹어 살이찌고 건장해지기는하나 칼슘과 철분이 모자란다. 뼈가약해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운동선수가 되려면 일찍부터 玄米、해조류、생선등을 고루 섭취해야 한다고 일본의학계는권유하고있다.

朴선수의 경우는 이와 비유할수 없지만 선수 양성과 관리에 우리도 교훈으로 삼아야할 권고같다. 「봉황의 영웅」은 8주가 지나면 다시 그라운드에 나서 던지고 치고 달릴것이라고한다. 새해엔 당당한 성인야구 주인공이 되리라는 기대감도 넘친다. 그는 천부적인 스포츠자질을 타고난 선수로投·打에 모두뛰어난만능플레이어다.

스포츠強國들은 어려서부터 재목감을 미리 골라 체육학교에 입학시켜 강훈과 세심한 선수관리를 한다. 우리도 일찍 스포츠人材를 찾아내 大成의 기틀을 잡아주어야 한다. 어린 영웅이 많이 나와야 성인스포츠에도 고교야구같은 인기가 확산될것이다.



朴魯俊

## 오늘의 小史 <29일>

▲韓·日합병조약발표 (1910)
▲美,比의 자치권 승인 (1916)
▲中·蘇 불가침조약 조인 (1937)
▲한국노조총연맹 발족 (1961)
▲韓·日항공협정 발효 (1967)
▲韓赤대표등 54명 판문점통해입북 (1972)
▲美·東獨, 외교관계 수립에합의 (1974)

## 海外토픽

### 證市에 마비카波紋 / ★日소니 새카메라 開發로

일본의 전자메이커 소니社가 금주초 필름이없이도 촬영이 가능한 마비카란 이름의 혁신적인 비디오·스틸·카메라 개발을 발표하고나서자 東京·뉴욕등지의 주식시장의 주가가 심한동요에 휩싸이는등 벌써부터 소니社와 여타 주요카메라 메이커들간의 판매전쟁의 조짐이 나타나고있다.

모리따·아끼오(盛田昭夫) 소니社회장이 마비카=개발을 발표한 24일을기점으로 소니사의 주식은 東京의 주식시장에서 연일폭등하기 시작한데 반해 「후지」캐논 리코 미놀타=올림푸스등 대다수의 재래식 카메라 제조회사들의 주가는 내리막길을 달렸다. 【東京=聯合】

### 公園서 자전거즐겨 / ★訪中 카터, 경호원들 진땀

중공을 방문중인 카터전미대통령부처는 조깅을 즐기던 미국에서의 습관대로 北京에서 새벽5시30분에 일어나 공원에서 자전거타기를 하는 통에 가까이에서 그를대할수있게된 중공인들을 즐겁게하고 있으나 그의 신변보호책임을 맡고있는 비밀경호원들은 진땀을 빼고있다고.

카터 전 대통령은 이른새벽 공원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중공인들에게 이를 드러내는 특유의 미소를 지으면서 아무 스스럼 없이 악수를 건네는가 하면 『니·하오』(『안녕하세요』라는뜻의중국말)라고 인사를 하기도. 【北京=UP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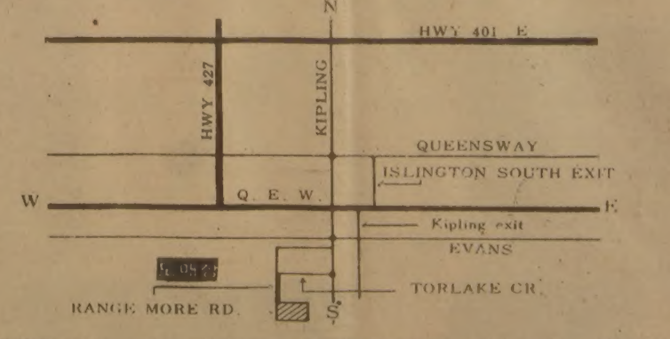
미국 이민법에 대하여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 이민쿼터제
● 노동허가법
● 학생비자발급
● 그외의 문제등, 또한 지금 어떠한 종류등 이민수속을 하시는데 문제가 있으신분

위와 같은 여러분들이 알고자 하시는 문제들에 대하여 전화나 편지를 주시면 뉴욕에서 다년간 이민법에 종사하신 미국인 변호사 ROGER C. ALGASE(알게이즈 씨)에서 좋더 알기쉽고, 자세히 성의껏 답해 드립니다.
사무실엔 항상 한국인 보조원이 계시어 불편없이 도와드립니다.

연락번호 (212) 762-5100
연락주소 136-31 ROOSEVELT AVE. Suite #2 FLUSHING, N. Y. 11354

한국인의 도매상
(한인연합상사— 구 HIT도매상)
"소문없이 싸게파는 도매상"




취급품목 : Cigarettes, Tobacos, Confectionaries, Groceries, Frozen Foods, Varieties, Stationary, Film & Battery
이 외에도 다양한 품목에 SPECIAL을 비치하고 고객에 써비스를 합니다.
주문즉시 신속배달
한 인 연 합 상 사
251—6578 U. K. L. CASH & CARRY 27 RANGEMORE DR., TORONTO M8Z 5H8

폐 업 인 사

고객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번 메트로 패캐진(Metro Packagine) 사업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어 부득이 문 닫음을 알려드리니 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데 깊은 감사 드립니다

귀 사업의 번영을 축원합니다

1981년9월1일

박 대 현
홍 성 표 삼가

# 共同발표 內容빈약

## 國會外務委 「韓日外相회담」질문답변 내용

◇국회外務委는 28일하오 盧信永외무장관(발언대)을 출석시킨 가운데 최근의 韓日관계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錄音

# 日、한국에만 高姿勢인가

소노다 極言에도 會談취소안한 理由는

商業 借款이라면 6千억弗까지 줬을것

## 60億弗제의 東北亞안정기여根據

## 善隣友邦으로서 期待엔 未洽한感

답변

▲朴定洙의원(議政) 질
▲任哲淳의원(民正) 질
▲盧信永외무장관답변
▲金賢子의원(民正) 질
▲高貞勳의원(民社) 질
▲申鎭洙의원(民韓) 질
▲李萬燮의원(국민) 질
▲盧信永외무장관 報告
▲盧장관답변

## 트뤼도、訪韓연기

9월27~28일까지

【오타와28日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 나의 이력서

〈題字·尹致暎〉

윤치영 ㉝

### 抗日운동의 轉機

### 美·中·滿洲등지서 四分五裂식 抗爭

### 尹·李 두義士사건 團合각성제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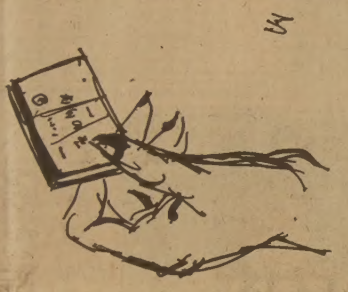
◇日帝의 中國침략에 쐐기를 박고 분열됐던 抗日독립운동에 새轉機를 마련한 尹奉吉(上) 李奉昌義士.

## 모든 중이 위의 生 <187>

趙善作作

禹慶熙畫

灰色노우트 ⑲




샘터의상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 환영

디자이너 MR. 김

606 BLOOR ST. W.

☎ : 535-4441



# 巨龜莊

New Management로 의욕적으로

손님들께 봉사.

새 매니저 THOMAS CHENG

(프로훼쇼날 매니저 고용, 중국인3명)

— 새로운 스타일, 새로운 맛

— 내부수리(테이블, 스테이쥐)

(스폿 · 라이트)

북미 최대의 한국식당

한식, 중화요리, 화식, 케네디안식

거구장

*영업시간

아침11시부터 밤2시까지 연중무휴

*200대 수용주차장

*가수와 밴드〈 금, 토, 일〉

# 민요와 팝송의 가수

## 박 소 영

(꾀꼬리가수! 미8군무대에서

인기절정이던 박소영 드디어

거구장에 출연)

**출연시간 :**

**금, 토, 일요일(밤 8 : 30~새벽 2 : 00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거구장대표 김선남

# 善一 決勝서 격돌 崇義

## 雙龍旗남녀高校농구 松源·水原여고 꺾고

## 松都高、龍山 대파 決勝에 (男高)

### 堅實한 팀플레이 펼쳐 66대57

◇1對1공방 여고부 준결승전서 善一女高의 崔炳和가 볼을 패스하는 순간 松源女商의 張文榮이 날쌘 동작으로 마크 하고있다。

松都高(남고부)와 善一女高, 崇義女高(여고부)가 제17회 쌍용기남녀고교 농구경승전에 진출했다。28일 장충체육관에서 속행된 대회 7일째 준결승전에서 남고부의 仁川松都高는 申鍾喆, 鄭德和등 조직적인 플레이로 개인기에 의존하는 龍山高를 66-57로 꺾고 결승에 진출했다。龍山高는 田昌眞, 許載등 주 득점원이 팀·플레이에 의존하지않고 安 경쟁을 벌여 탄탄한 팀웍을 가진 松都에 우승을 넘겼다。한편 여고부 추결승서 善一女高는 金明欽, 金享淑 李美子등의 활약으로 張文榮이 분전하는 松源女商을 82-56으로 대파했으며、金銀淑, 趙聖淑이 팀을이끄는 崇義女高와 文敬子의 포스트·플레이에만 의존하는 水原女高의 대전서는 崇義女高가 45-43으로 이겼다。

崇義女高는 경기종료 5초를 남기고 金銀淑이 슛을 성공시켜 水原女高를 45-43한 골차로 제치고 결승전에 올랐다。

이날 松都와 龍山의 대전서 龍山은 전반 朴成海이 리바운드를 착실히 잡아내고 田昌眞, 許載의 슛이 호조를보여 松都에 선제리드를 잡았다。

그러나 松都가 적극방어를 펴고 田昌眞, 許載의 슛을봉쇄하면서 추격, 개인기에 의존한 龍山의 플레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松都는 申鍾喆이 공·수의 리바운드에서 분전하고 속공을벌여 37-36으로 전세를 뒤집은후 39-39로 전반을 타이로 마쳤다。

조직적인 팀·플레이와 개인플레이의 차이는 후반에 더욱 현저하게 드러났다。松都는 가드진의 뛰어난 볼·드리블과 申鍾喆 鄭德和의 드라이브인이 골밑슛이 계속 주효, 龍山의 추격전에서 서서히 벗어났다。

龍山은 패스·플레이가 제대로 되지않는데다 슛마저 불발, 추격의 실마리를 잡지못했다。田昌眞 許載 두선수는 계속 슛을날렸으나 불발됐고 松都의 골밑을 전혀 공략하지못해 66-57로 졌다。

▲제7일준결승
▲여고부
선일여고 82 (37 45 / 29 27) 56 송원여상
▲남고부
송도고 66 (27 39 / 18 39) 57 용산고
숭의여고 45 (19 26 / 19 24) 43 수원여고

# 社會단체전서 企銀 1위

## 전국女性사격 曺玉子·金銘善은 個人戰1·2위

◇여중·고 교사부의 개인 공기소총경기。

企業銀行은 28일 泰陵종합사격장에서 막을 내린 제9회 전국여성사격대회 공기소총 사회단체전에서 1천1백30점으로 대회첫패권을 차지했다。

企銀이 이 종목에서 우승한 것은 78년 육군참모총장기대회이래 3년만이다。2차례 재심끝에 國民銀行은 2점이 뒤져 준우승을 차지했고, 韓國銀行은 3위에 올랐다。이 종목 3위까지 기록은 종전 1천1백25점보다 앞서는 대회 신기록이다。

또 개인전에서 曺玉子(22·한국은)는 3백81점으로 우승했다。

濟州女商출신인 曺는 사격경력 3년에 전국대회에서 처음 정상에 오른 신인이다。

이 종목 한국최고기록을 가진 金銘善(신탄은)은 1점 초과하는 3백79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세웠으나 2위를 차지했다。

女高단체전에서는 全州女商이 대회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했고 동개인전에서는 全惠慶(혜원여고)이 6점초과하는 3백78점으로 대회신기록을 수립했다。

◇최종일 전적 (종목별 1위및대회신)
▲사회단체 공기소총=①기업은 1,130 ②국민은 1,127 (이상 대회신·종전 1,125)
▲동개인=①조옥자(한국은) 381 ②김명선(신탄은) 379 (이상대회신·종전 378)
▲동여고 단체=전주 여상 1,121 (대회신·종전 1,110)
▲동개인=①전혜경(혜원) 378 ②양미옥(전주여상) 376 ③강영희(전주여상) 375 ④김순옥(춘천) 373 ⑤이강순(목호여종) 373 (이상대회신 종전 372)
▲동 일반부개인=이금자(국민은) 377
▲동여대단체=광운공 1,087
▲동개인=김정금(한체대) 361
▲스탠더드 권총=김혜영(지도단) 583
▲동여고개인=남자경(혜원) 372
▲동여대=윤덕남(인하) 373
▲동교사부단체=충북원남 943
▲동개인=김영옥(강서) 355

## 日 고교野球선발과 對戰할 한국팀 選手 보강

### 9월3일 서울에서

대한야구협회는 9월3일부터 3일간 서울운동장에서 열리는 日本고교선발 초청 韓·日고교야구대회에 출전할 한국고교선발팀을 확정, 발표했다。새대표팀에는 다리부상으로 입원한 朴魯俊과 어깨고장인 金健友(이상선린상고)가 제외되고 鳳凰大旗 우승팀 慶北高의 좌완에이스 成埈이 보강되었다。또 새로이 내야수로 洪淳浩(경북고)도 새로이 보강됐다。고교선발팀은 金永德감독지도로 28일 信一高구장서 합숙훈련에 들어갔다。

日本선발은 甲子園대회 우승팀 報德學園의 한국고교 에이스金義明등으로 구성돼 있다。

◇고교선발팀명단 ▲감독=金永德(북일)▲부수=金正洙(진흥)車東哲(광주일)趙啓顯(군상)李載弘(신일)成埈(경북)▲포수=金相國(북일)張彩根(광상)▲내야수=柳仲逸·洪淳浩(경북)曺良根(북일)姜起雄(대구)金泰明(전주)趙永一(선린)▲외야수=林暻澤(마산)李殿宰(선린)李相明(청주)崔武永(경북)

## 仁川製鐵·三湖주택 4強에

### 전국職場人야구 住公·雙龍물산 이겨

제2회 전국직장인 야구대회 3일째 경기가 28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려 仁川製鐵과 三湖住宅이 4強에 선착, 준결승서 대결케 됐다。

◇제3일전적
▲2회전

| | | |
|---|---|---|
| 삼호주택 | 010 000 01 | 2 |
| 쌍용물산 | 100 000 00 | 1 |
| 주택공사 | 000 100 1 | 2 |
| 인천제철 | 100 130 × | 5 |

▲1회전

| | | |
|---|---|---|
| 해우선박 | 000 040 5 | 9 |
| 부성여객 | 000 000 2 | 2 |

## 慶北高팀 어제凱旋

【大邱=聯合】제11회 鳳凰旗쟁탈 전국고교야구대회에서 우승, 靑龍旗에 이어 올해 전국고교야구대회 2관왕이 된 慶北高야구팀 一行이 28일하오 2시 특급열차편으로 東大邱에 귀향했다。

이날 東大邱역광장에 마련된 환영식장에는 金容大대구시교육감·李정부대구시체육회부회장·시각기관장및 체육관계자·재학생등 2천여명이 참가, 이들을 환영했다。

## 亞洲女子하키 韓國、日에도 敗北 4敗

【京都27日AP=聯合】한국여자필드·하키대표팀은 27일 오또(京都)市에서 속행된 아시아 여자필드·하키선수권대회제4차전경기에서 日本에 4-2로 패배, 4패의 기록으로 6개 참가국중 최하위에 머물렀다。

한편 인도는 홍콩을 6-0으로 대파, 4전전승으로 日本과 함께 동률을 선두를 지켰다。

日本 4 (2-1 / 2-1) 2 한국
(4승) (4패)

## 花郞 발복到着 메르데카盃 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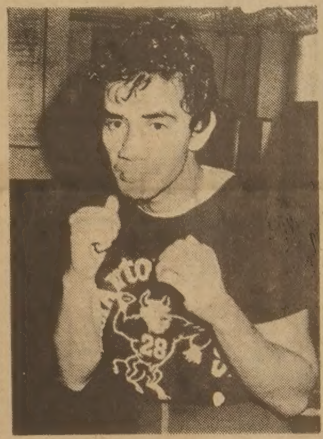
【콸라룸푸르28日AP=聯合】제25회 메르데카(獨立)컵 축구대회에 참가할 韓國대표팀이 27일밤 콸라룸푸르에 도착, 여장을 풀었다。

韓國 대표팀의 金正男코치는 도착후 기자들에게 韓國팀은 이번대회에서 우승을목표로될것이며 아울러 내년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아시안·게임과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을대비한 전력강화에 힘쓸것이라고 말했다。

韓國팀은 월드·컵 예선전 출전선수들이 제외돼있어 주로 신진선수들로 전력의 주축을 이루고있다。

# 「작은巨人」컴백의 一戰

### 내일저녁 奬忠體育館서



◇王者 아벨라

◇도전자 金泰式

프로복싱 경량급에「3金시대」가 펼쳐질것인가。

「링의 작은巨人」으로 화제를 일으켰던 강타자 金泰式(24)이 30일밤 7시50분 장충체육관서 WBC(세계권투평의회) 플라이급챔피언 안토니오·아벨라(23·멕시코)에 도전、의욕의 한판 승부를 겨룬다。

金은 지난해2월 전광석화의 번개펀치로 파나마의 루이스·이바라를 2회에 KO시키고 WBA(세계권투협회) 플라이급 王座를 차지했으나 아르헬·아로산와의 1차방어전때 턱뼈를 크게 다쳤으며 지난해12월 로스앤젤레스의 2차방어전서 南阿의 피터·마테불라에게 판정패、실의의 나날을 보내왔다。

요즘의 세계경량급 판도는 춘추전국시대의 양상을 띠고 있다。챔피언자리를 1년 지켜내기가 어렵다。金泰式에게 쓰러졌던 루이스·이바라가 다시 WBA 플라이급 챔피언으로 복귀했는가 하면、WBC 플라이급의 정상판도는 朴贊希-日本의 오오꾸마(大熊正二)를 거쳐 안토니오·아벨라에 넘어왔는데、아벨라의 미래도 예측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설욕전의 목표가 마테불라로부터 아벨라로 바뀌었지만 金泰式은 마테불라와 다시 싸운다는자세로 30일밤의 대전에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마음을 가다듬고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해왔읍니다。훈련결과를 링위에 모조리 털어내 보이고 싶습니다。3개월동안에 변해야 얼마만큼 변하겠읍니까。내스타일대로 열심히 싸우겠읍니다』

金泰式이 아벨라를 물리치게되면 한국프로복싱은 金喆鎬(WBC슈퍼플라이급챔피언) 金煥珍(WBA주니어플라이급챔피언)과 함께 경량급서 3명의 세계챔피언을 갖게된다。

또한 金泰式에게는 지난날의 악몽을 청산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중요한 대전이기도 하다。

WBC플라이급타이틀을 차지하면 金은 洪秀煥에이어서 두번째로 세계정상에 컴백하는 선수가 된다。아벨라에 패한다하더라도 경기내용만 좋다면 金을다시 세계에도전시키고싶다는것이 그를 키워온 元振체육관의 金常起회장과 金奎喆관장의 생각이다。

30일 대전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까。金泰式캠프에서는 초반 5라운드이내를 승부의 고비로 보고있다。金이나 아벨라 모두 70%가 넘는 높은 KO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면 타격전이 벌어졌을때 충격이 큰 펀치를 먼저 맞는쪽이 절대 불리하다。金의 스타일로보아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붙이는 작전을 기대해볼 하지만 아벨라가 지구전으로 유도해 나간다면 체력싸움으로 양상이 바뀌게되는데 金奎喆관장은『金은 마테불라와의 대전서 15회를 소화한 경험이 있으며、판정으로 갈 경우에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고 밝혔다。

### 아벨라 — KO率 70%의 인파이터 어떤 펀치든 잘驅使

#### 키도크고 戰績서도 貫祿앞서

많은 국내전문가들은 아벨라가 만만치않은 선수라는 의견을 제시하고있다。펀치의 위력뿐만 아니라 훅、스트레이트、어퍼컷등의 펀치를 정확하게 구사하는 기술을 겸비하고있고 키가 金(1m61)보다 4cm가량큰잇점을갖고있다。

멕시코 파달라하라 태생의 아벨라는 75년 4월 프로로전향、현재까지 28승(23KO)5패1무의 전적을 마크하고 있다。아마전적은 40승2패。左右훅 모두 KO위력을 갖고있으며 79년2월 당시 WBC플라이급챔피언 미겔·칸토에도전、심판전원일치의 판정패를 당했었다。아벨라는 금년5월12일 日本의 미또에서 챔피언 오오꾸마에게도전、7회서 左右훅으로 찬스를 잡은후 짧은 오른쪽훅을 오오꾸마의 안면에 터뜨려 KO승을 기록했다。

도 일발필도의 강타자여서 15승(12KO)2패의 金도 무모하게 휘두르지않고 正打를 터뜨리면 KO승도 기대할수 있다。

알폰소·사모라를 제외하고 한국에찾아온 멕시코선수들은 차례차례 한국선수들에게 패했었다。심리적인면에서 金泰式에게 용기를 주는 기록이다。아벨라는이번경기서12만달러의 대전료를받는다。【契】

### 金泰式 — 5R이내 KO勝 목표 숏훅도 한결 銳利해

#### ″3개월 强訓실력 링서 발휘″

## 黃善愛 연습中斷 어깨와 손가락 異常으로

全英國배드민턴선수권대회 여자단식서 우승했던 黃善愛가 어깨및 손가락고장으로 연습을 중단하고 선수관리에 허점을 드러내고있다。

黃선수는 올해 1월부터 7월의 월드게임까지 무려 6개대회에 잇달아 출전(단식우승4번·준우승1번)한 데이어 재학중인 韓國體大의 日本전지훈련에까지 참가、피로를 이기지 못하고있다。

그는 귀국후 21일부터 체육회 강화훈련에 참가했으나 어깨가 낫지않고 있는데다 오른쪽 손가락의 세포가 파괴돼 라키트를 쥘수없는 상태라고 金英坤대표팀 코치가 말했다。

◇英陸上의호프 英國남자 육상의 간판선수 세바스찬·코가 최근 스위스 취리히서 열린 국제 육상대회 1마일 레이스서 3분48초53의 세계신기록을 세우고 헤이프를 끊는 모습。【駐韓英國大使館제공】

## 다친 全瑛大대신 宋東煜 데盃 敗者戰출전팀 확정

대한테니스협회는 10월 이탈리아에서 벌어지는 이탈리아와의 데이비스·컵패자전에출전할 국가대표 4명을 선발했다。새대표팀은 부상중인 全瑛大(건국대)이 교체 기용되었을뿐 지난봄 구성된대표팀과 큰 변화가 없다。

10월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이메자전 승자는 82년도 데이비스·컵대회의 지역예선없이 16强의 본선진출권을얻게된다。

데이비스·컵대표팀과 11월 페더레이션·컵대회에 출전하는 여자대표들은 10월6일부터 10일까지 泰國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도 출전할 예정이다。

◇데이비스·컵대표팀 ▲코치=崔富吉 ▲선수=李우룡、金春浩、田昌大(이상명지대)、宋東煜(울산공대)

## 페더레이션컵 女테니스日서

【東京27日AFP=聯合】81년도 페더레이션컵 여자테니스선수권대회가 지난대회 우승팀인 美國을 비롯 韓國·中共·蘇聯·日本등 32개국 선수들이 참가한 가운데 오는11월9일부터 15일까지 1주일간 日本의 다마가와(玉川)에서 개최된다고 日本테니스협회(JTA)가 27일 발표했다。

JTA는 금년부터 中共이 이대회에 처음참가하게되었다고 밝혔다。대진표는 오는9월18일 추첨으로 결정된다。

## 全北大學우승 전국學生검도

【釜山=聯合】28일 부산 광주서 체육관에서 폐막된 제10회 문교장관배쟁탈 전국학생 검도대회 대학부결승에서 전북대는 부산대를 4-1로 압도、우승을 거두었다。

이에앞서 고등부경기에서 성동고는 서석고와 2대2로 비겼으나 본수차이로 승리, 대회 첫우승의 감격을 안았고 중등부에서는 부산배정중이 부평서중을 3대2로 누르고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2일전적
▲대학부결승
전북대 4-1 부산대
▲대학부준결승
전북대 3-1 목포대
부산대 3-1 성균관대
▲고등부결승
성동고 2-2 서석고 (본수차)
▲고등부준결승
서석고 3-1 충남고
성동고 2-1 창신고
▲중등부결승
배정중 3-2 부평서중
▲중등부준결승
부평서중 2-1 영암중
배정중 2-0 창신중

## 日、選手6명 파견 平壤 國際아마복싱

【東京27日AFP=聯合】日本은오는9월13일부터 20일까지 平壤에서 개최되는 국제아마·복싱대회에 6명의 선수와 2명의 임원으로 구성된 총8명의 선수단을 파견할것이라고 日本아마·복싱연맹(JABF)이 27일 발표했다。

## 地方短信

### 同姓同本 婚姻반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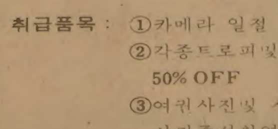
전남光州·光山지방의 유림5백여명은 27일낮 光州향교에서 동성동본혼인반대 궐기대회를 가졌다。

이날 대회에서는▲동성동본의 혼인을 절대 반대한다▲예(禮)의 국민으로 인륜대본을 끝까지 사수한다▲5천년전통 문화를 세계에빛내자는등 3개항의 결의문을채택했다。【光州】

### 의사뇌염 患者8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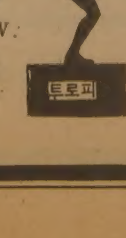
【木浦=聯合】전남 木浦·新安·咸平등지에서 의사뇌염환자 8명이 발생, 木浦성콜롬방병원에 입원치료중인것으로 26일하오 밝혀졌다。


킴스 카메라 및 트로피
Kim's Camera & Sou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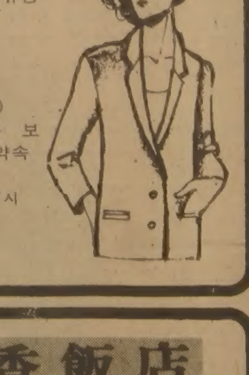
취급품목 : ①카메라 일절
②각종트로피및 상패 50% OFF
③여권사진및 시민권 사진즉석촬영 (5분이내)

대표 : 김 춘 탁
619 BLOOR ST. W.
B) 534-1085
R) 244-9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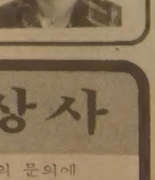




코스모스
동양인에게 어울리는 유명 메아커
숙녀복(size 5~16)
좋은 가격으로 봉사
품질좋고 가격좋은
아동복(신생아~16)
똑같은 옷으로 다른곳 보다 저렴한 가격임을 약속 드림.
월요일~토요일 : 10시~7시
일요일 : 오후3시~7시
706BLOOR ST·W
☎ 534-2003



"아름다운 피부는 여인의 소망"
○ Mary Kay는 바로 여성의 젊음과 아름다움을 돋보이게 하는 신비와 매력의 상징입니다. 특히 기미 여드름, 모공이 커서 화장에 자신없는 분, 부드럽고 탄력있는 피부를 원하시는 분에게 꼭 권하고 싶습니다.
○ 고국 방문을 하시는 분에게는 특별봉사 하겠으며, 주소가 변경되었으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 : 2 MEADOWGLEN PLACE
# 202 A, SCARB.
ONT M1G 2V6
☎ : (B)438-6440 (R)439-1330



一品香飯店
(짜장면등…)중국북방식
한국인 입에 알맞는 요리.
특히 북경오리요리전문.
1주일 내내영업(11AM.~11P.M.)
393 DUNDAS ST. W.
☎ : 363-9527
TOR. ONT.
CHING-ROYAL RESTAURANT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 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Hydrotherapy
★Downtown Office : (416) 537-6685
8AM~6:30P 621A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삼미떡집2층)
★Willowdale Office : (416) 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거의 다가서임)
★평일 오후3시및 토요일에 오시는 분은 미리 전화주십시오.
★집전화 : (416) 222-9480

Grant Brown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 한 구를 찾아주십시오.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82년형 J-2000

잘 정비된 백여대의
Used Car들이 있읍니다.
1575 WESTON RD.
WESTON, ONT
(B) 247-7161
(R) 977-2731

# 마을金庫 貸出심사 강화

## 不正사건 잇달아 政府서 法개정안

### 貸出 전문會計人에 맡겨 (계리사 자격자)

### 理事長등 財政보증 강제규정둬

정부는 27일 이사장의 공금횡령 사건등이 그치지 않는 마을금고의 부정을 구조적으로 막기 위해 신용협동조합법중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넘길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재 이사장의 인감만으로 대출이 가능한 대출업무를 계리사 자격이있는 유급 전문회계인에게 맡기고 ▲[illegible] 이사장, 이사의 재정보증제도를 현행의무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강화, 공금횡령등에는 재정보증인들이 연대책임을 지워 변상토록했다.

또 사고에대한 [illegible] 5억원정도를 비축토록 할방침이다.

이와함께 정부는 금고의 [illegible]

마을금고는 [illegible] 운동의 하나로 추진, 현재 전국에 모두 2만3천여개 금고가있고 총자산이 5천4백억원에 달하는데 회원의 대부분이 영세상인과 국민학[illegible] 을 횡령하는등 모두 52개금고에서 대출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내년에 [illegible] 27억원 [illegible] 을 국고보조해주기로 하는한편 제도적보완책을 서둘러왔었다.

### 與受信재무부、購販사업 내무부서 관장

◇서울 小公路에 可變車線 첫선 서울小公路에 처음으로 가변차선이 등장했다。노폭을 중앙선에의해 2등분하던 방식대신 5개차선중 러시아워때는 도심지로 들어가는 차선을 3개로 늘리고 저녁시간에는 3호터널쪽으로 빠지는 차선을 3개로 늘리는 방식이다。이에 따라小公路의 차선은 종래 4개차선에서 5개차선으로 늘어났고 차선폭은 3m에서 2·7m로 줄어들었으며 2톤이상의 차량(노선버스제외)은통행이 제한되었다。한편 경찰당국은앞으로 사직터널에도 가변차선제를 실시할계획이다。

### TV 難視聽지역 시청료4백원引下

한국방송공사(KBS)는 읍·면이하 TV난시청지역중 정부가 허가한 유선방송(공시청안테나)에 가입한 시청자에 대해서는 9월분부터 시청료를 4백원씩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난시청지역 시청자들이 시청료외에 공시청안테나의 관리비를 따로 내는데따른 2중부담을 덜어주기위한 것이다。

TV난시청으로 공시청안테나의 관리비를 추가부담하는 지역은 전국9백50여곳 70여만세대에 이르며 이중6백여개 지역은 무허가업자에 의해 공시청안테나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 새벽 20代夫婦피습… 남편絶命

## 怪漢칼찔려 부인重態, 아기는 안다쳐

### 용의자 집主人생질 身柄확보

서울新林洞

◇중상을입은 鄭씨의부인 朴蘭娥씨。

◇숨진 [illegible]

28일새벽4시께 서울冠岳區新林2洞1[illegible]의51 盧甲錫씨(44·건축기능공)집2층에 세든 鄭[illegible]씨(28·도[illegible]) [illegible] 중태다。함께자던 鄭씨의 외아들(생후10개월)은 무사했다。

경찰은▲범행현장에서 발견된 식칼이 집주인 盧씨집 것이고▲외부에서 2층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의 출입문과 창문등이 잠겨있는등 외부인 흔적이 뚜렷치않고 ▲朴씨가 칼에찔린직후 2층으로 뛰어나오던남편 鄭씨에게『범인은 조카요』라고 말했다는점▲외부침입범인이라면 손목시계등을 훔쳐갈수 있었는데다 ▲朴씨가범인의칼자루색깔이 초록이었다고 진술했는데 盧씨집 부엌칼과 색깔이 같았으며 ▲盧씨집외부에서 피발자국등 도주흔적이 발견되지 못한점등을들어 사건현장을 처음발견, 경찰에신고한 집주인 盧씨의생질 趙모씨(23·노동)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신병을 확보했다。

이와함께 경찰은 鄭씨와 격투를 벌였던 鄭씨방에서 趙씨의 것으로 보이는 모발 20여개와 지문6개를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서울南部병원에 입원치료중인 朴씨에 의하면 이날 외아들이 울어 새벽2시께야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등이 아파 눈을 떠보니 식칼을 든 범인이 남편과 격투를 벌이고 있었다는것。

놀란 朴씨가 마루로 뛰어나오며 아래층을 향해『사람살리라』고 소리쳤는데 뒤따라 남편 鄭씨도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면서 마루로 나오다 함께 정신을 잃었다는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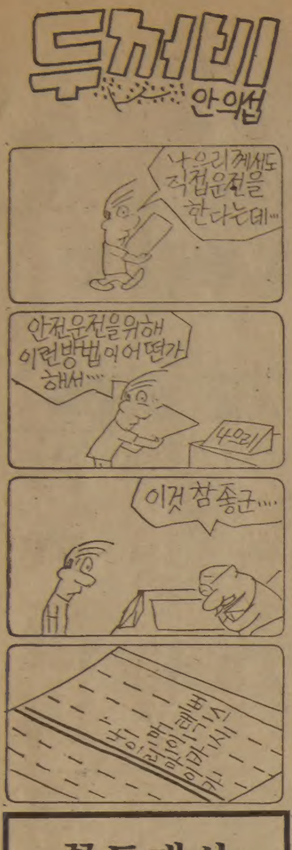
검시결과 숨진 鄭씨는 오른쪽 가슴과 배등 2곳에 길이 8cm가량을 찔렸고 朴씨는 등에 2곳 오른쪽 팔에 1곳을 찔렸다。

신병이 확보된 趙씨는 5년전부터 盧씨를따라 공사판에서 노동일을해오다 40여일전 교통사고를당해 입원치료를 받다가 1주일전부터는 盧씨집에서 통원치료하고있다。

숨진 鄭씨는 지난79년 仁荷공대금속공학과를 졸업, 같은해11월 朴씨와 결혼했으며 서울新村 梨大입구 금룡출판사에서 무협소설 번역을 하다가 지난6월초 乙支路2街 무성사로 옮겼으며 월수입은 30~40만원선이다。

鄭씨부부는 서울銅雀區上道3洞299의132에서 3백만원에 전세를 살다 지난 16일에 盧씨집2층을 4백만원 전세내 이사해왔다。

◇鄭씨 부부가 세들어 살던 盧씨집。범인은 朴씨가 비명을 지르자 식칼을 비상계단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꽃도매상
437 CARLAW ST.
☎: 465-8167

## 국제旅行 알선업체

# 내년에 登錄制전환

### 資本金 1億5千萬원으로늘려 亂立방지

교통부는 외국인 관광객유치와 국민해외진출확대를 뒷받침하기위해 관계법을개정, 내년부터 현행 국제여행알선업체의 허가제를 일정한 요건및 기준을 갖춘 업체에 대한 등록제로 바꾸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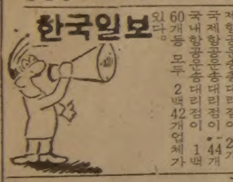
28일 교통부에 따르면 국제여행알선업체를 등록제로 바꾸는 대신 부실업체의 난립을 막고 대내외적으로 공신력을 높이기위해 자본금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증액하는등 등록기준을 대폭강화키로 했다。

교통부는 또 현행국제항공운송대리점을 없애고 국제여행알선업체로 통합、여행알선창구를 일원화하고 국제항공운송총대리점은 면허제에서 신고제로、국내여행알선업체는 허가제에서신고제로、국내항공운송대리점은 신고제에서 자유화하기로 각각방침을 정했다。

이밖에도 여행알선 업종에 여행대리점제를신설、국제여행알선업체를 위해 해외여행의 직접 안내를 제외한 일체의 여행알선업무를 취급토록 허용하고 위법·부당사항이드러난 각업체에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사업정지와 등록취소 또는 등록갱신을하도록하기로했다。

앞으로 여권수속 발급업무가 각시·도에 이양되고 지방에 여행대리점이 많이생기면 국민들은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등 지금까지의 큰불편을 덜게된다。

현재여행및항공관련업체는 국제여행알선업체가23개、국제항공운송총대리점이 25개、국제항공운송대리점이 44개 국내항공운송대리점이 1백60개등 모두 2백42개업체가 있다。





# 〃騷擾못막는大學 存在의심〃

## 李文敎 〃休·缺講불용 廢校도不辭〃

李奎浩문교장관은 28일 전국의 대학총장들에게『앞으로 어떤사태아래서도 휴강을 하거나 결강을하면 이를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李장관은『오늘날처럼 국제경쟁이 격심하고 대학들이 기어코 질적인 수준향상을 기해야할 상황아래서 휴강을해야할 사태에이르고 또 이를 스스로 규제할 능력이없다면 그런대학은 존재할이유를 의심받게된다』고 경고했다。

李장관은 이날하오2시 서울世宗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 1백개대학(11개교육대포함) 총학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각대학들은 학원소요의 종국적인 극복을위해、자율적인 능력을 배양해달라』고 당부했다。

李장관은『전체적인 통일성안에서 개별적인 다양성의 존중이 우리교육정책의 하나의 지침』이라고 밝히고『대학인들이 아직도 소극적인 저항과 비생산적인 냉소의 타성을 벗어나지못한다면 자기자신과 우리의기관이 결정적으로 낙후된다는것을 명심해달라』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밖에도『대학의 학과가 지나치게 세분돼 학생들이 학문자체에 관심을 갖지못한채 단편적인 지식만을 익히는 폐단이 있다』고 지적하고『교육과정、학점제도、교수학습방법、시험제도와 평가방법등에서 대학별로 창의적으로 운영할수있도록 방식을 개발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학생과 교수와의 대화확대방안▲학점관리·교양교육과정의 교과목개편문제▲장학금확충▲대학정화운동의 활성화▲대학생국외연수및 유학상담실운영등에관한 사항들이 협의됐다。

### 소주먹고 農藥살포 농부中毒 숨져

【全州=聯】27일 낮12시께 全州市三川洞135 용산부락앞 논에서 농약을 뿌리던 이마을 李京植씨(45)가 농약에 중독, 신음중인 것을 李씨의 처 鄭順德여인(43)이 발견, 집으로 옮겼으나 곧 숨졌다。

鄭여인에 따르면 李씨는 이날 상오7시께『독한 농약을 뿌리려면 술기운이 있어야한다』면서 2홉들이 소주1병을 마신후 마을앞 1천2백평의 논에 나가 도열병 농약을 뿌리다 비틀거리며 논바닥에 쓰러졌다는 것。

李씨의 사체를 검안한 全州대한의원 韓邦洙원장(52)은『술에 취한 상태에서 농약을 뿌렸기때문에 중독상태가 가속된것 같다』면서『술에 취하면 독성감지가 약해지므로 농약을 뿌릴때는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 大學증원 대폭 억제

## 내년에 倫理등 일부政策科는 제외

문교부는 82학년도 대학입학인원증원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하는한편 특히 서울지역대학은 수도권인구 억제의 차원에서 이를 막기로했다。

金讚宰대학교육국장은 28일 82학년도의 대학입학인원은▲올해 신설된 9개대학과▲유아교육과、국민윤리과、국악과등 일부 정부의 시책학과를 제외하고는 증원을 해주지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이는 현재의 대학시설과 수확보가 지난해의 증원폭을 감당하기에도 크게 모자라는 형편이기때문이라고 말했다。

金국장은 특히 서울지역대학은 수도권 인구분산책에 따라 앞으로도 상당기간 증원이 어려울것으로 본다고말하고 지금 시급한일은 증원이 아니고 부족한시설과 교원의 확보라고강조했다。

◇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는 포레스터 장군㊨。

### 美 포레스터中將 中大서 博士학위

한미연합야전군사령관유진·포레스터 미육군중장이 28일中央대학교로부터명예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李奎浩문교장관、1군사령관등 교내외인사들이 참석한 수여식에서 포레스터 중장은 답사를 통해『현재 당면한북괴의위협은 1950년도의 그것과 같은 정도의것』이라고 말하고『한미야전군사령관으로서 본인은 전쟁발발시 만반의 응전태세를 갖추고있다는 사실에 긍지를느낀다』고 말했다。

# 浦項·釜山 또微震

## 올 두번째、창문도 흔들려

【서울=聯】중앙관상대는 27일밤 9시35분30초께 浦項東南東약50km지점 해저에서 강도 3·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관상대는 이번 지진의 진앙지 인근 浦項지방은 진도 2를、釜山지방은 진도 1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히고 지진은 수십초동안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浦項·釜山지방에서는 지난 4월15일에도 지진이발생(浦項=진도 3、釜山=진도2)했었는데 당시의 진앙지는浦項동쪽65km 해저였다。

浦項·釜山지방의 지진발생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같다。

▲浦項=올들어 2번째로 발생한 이번 지진으로 시가지 건물의 창문이 약 30초동안 흔들렸다。

지진발생 순간에 바둑을두고 있었던 일부 시민들은 바둑돌이 크게 떨며 바둑판이 좌우로 약간 흔들려 지진이 발생했음을 직감할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진의 강도가 세지않았음인지 대부분의 시민들은 지진발생사실조차도 몰랐다。

▲釜山=밤9시35분48초부터 13초동안 계속된 이번 지진은 진도1로 감각이 예민한 사람만이 느낄수있는 정도였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중에는 중앙관상대 釜山지대에 전화를 걸어『방금 서있었더니 몸이 약간 흔들리는것 같더라。혹시 지진이 지나간것 아니냐』고 문의를 해오기도했다。

### 〃北韓은 南北對話 응하라〃

#### 기독교지도자협의회 聲明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회장 兪虎濬)는 28일 분단조국의 평화적통일을 기도하는10개항의 성명서를발표,『남북한 평화통일은 6천만온 겨레의 공통된 염원이며 민족역사의 절실한과제』라고 밝히고『북한은 폐쇄된 사회를 개방하여 인간영혼의 근본욕구인 종교자유를 허용하고、평화통일을 위한 성실한대화에 임할것』을 촉구했다。

## 한국일보 詩壇

### 어느날 저녁

金魚水

지독석 바람결이
살다 멎은 골목길에
부서진 대화들이
조각 조각 구는 저녁
피곤도 잊은 나그네
걷고 있는 그 마음。

광화문 옛 거리에
어둠이 깊어 들면
밀리는 인파들이
자욱 자욱 흩어지고
가로수 가는 곁에도
빗방울이 듣는다。

가장많은 지역에서 가장많이 읽혀지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오리엔탈·파레스
일요일 영업개시 오후 3 시부터
북경식 요리, 소고기 철판구이,
각종 홍콩식 요리
529 BLOOR ST. W. TOR.
예약: 533-3545~6

MR. CHOI'S RESTAURANT
주중: 월~수 낮12시~밤12시
목, 금: 12시~밤1시
토: 4시반~1.1시
2432 Eglinton Ave. E. Scarborough
☎: 759-8512
최 영 호

한 국 관
냉면·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 문
대소 200석 완비
OPEN: 오전11시~새벽1시
628 BLOOR ST. W. TORONTO
536-0290

블 루 어 안 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안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영업시간: 월~목·9:30AM~7AM
금·9:30AM~8PM
토·9:30AM~6PM
주 소: 629 BLOOR ST. W. TOR.
전 화: 531-2236(B), 282-2369(R)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11A.M.~새벽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1618
곽 청 필, 김 선 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화~금 11:30AM-12PM
일요일 11: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864-9347

각종 한약재 도매
보약조제및 상담
●우황청심환 ●우황 ●사향
●용담 ●녹용 ●정주사 ●해구편
중국의사의 진료를 원하시는 분은 미리 시간약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偉信公司 KINGS IMPORTS
428 DUNDAS ST. W. TOR.
☎: (416) 977-9818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정력감퇴,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 한국안내광고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 구 인

"급 구"
소형차를 갖고 계신분으로 주3회 식품점에 신문 배달하실분 구함.
☎ : 533-2361 MRS. KIM

쥬스바에서 파트타임여자 헬퍼구함
☎ : 368-9206(2시이후)
438-0403 미세스 유

키친헬퍼및 접시닦을 분 구함.
일본어를 하실 수 있는 분 환영
☎ : 960-6405 4 AVENUE ROAD. TOR.

베이비시터 구함 :
입주하셔서 베이비시터 하실분
☎ : 535-4441 미세스 김

가게 경험있는 남자 FULL TIME HELPER구함
☎ : 597-1115

집에서 여자용 세타를 쌀수 있는분.
계속해서 일할 수 있음. 영어회화 가능한분
☎ 665-2265, 488-5170, 488-4498

식당 호모사(HOMOSA)
웨이트레스 구함 : 영어회화할 수 있는 분
☎ : 466-2250

웨이터, 웨이트레스 구함
일본 레스트랑
☎ : 977-9519

애기 봐줄사람 구합니다 : 출퇴근하셔도 좋고, 같이 계셔도 좋습니다.
☎ : 244-2043, 248-6065

사무실 청소할 분 : 부부로서 경험있고 영어회화 가능한분, 파타임
☎ : 298-3383 마이크

구 인(사람 구함)
공장에서 일하실분 구함. 주 나흘간 낮과 밤 시후트 워크
주소 : 971 MATHESON BLVD. MISSISSAUGA.
☎ 625-1433

PHOTO샾에서 일할 여자분구함.
유경험자에 한함
☎ : 746-2120

베이비 시터 구함 :
입주자 우대함
☎763-7450 미세스. 김

FULL TIME HELPER구함 : 남자 유경험자에 한함 막일과 CASHER를 함께 할 사람요.
☎ : 534-3338

도나스 샾에서 캐시어 구함
여자(아침8시~오후4시)
남자(밤12시~아침8시)
☎ : 531-2689 1468 QUEEN ST. W.

급 구
●스토어 매니저 구함, 약간의 보증금 요함.
●풀타임 캐쉬어 구함
☎ : 742-0800, 241-4755 미스타 차

스토아에서 일할 남자헬퍼구함
(오후5시~오후11시)
☎ : 466-3995 QUEEN E. 지역

## 매매및 양도

야채가게 팝니다
☎ : 690-6967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배리지역)
주매상 : 8,000달러, 리스 : 4년+5년
직접방문 요망
☎ : 705-726-5224

버라이어티 스토아매매 :
주매상 $2000, 권리금 $8000, 렌트 $590
뒤에 살림집 방2개 ☎ : 259-0869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유명메이커 제품만 취급하는
TV, 스테레오 비즈네스에
흥미있으신분 연락바람.
직접와 보십시요.
☎ : 745-5555 미스타 전

그로서리스토아
매 매
☎ : 265-0400 MR. 이그나지오

스키 휴양지 부근에 있는 전망있는
스토아 매매
에드·구마가이에게 연락바람.
"VARIETY & GROCERY STORE"
Near Horseshoe valley Ski Resort.
Modern building, large living quarters, great potential. Present Gross $150,000.00. 14% mortgage. Asking $149,000.00.
For details contact Ed Kumagai
CENTURY 21 Don Campbell Real Estate Limited
1-705-325-1366 or 1-705-325-9034.

가게있는 건물 팝니다 :
주매상 $3,500 이상
☎ : 690-3382

가정형편상 가게를 급히 팝니다.
주매상 : $3천2백(좋은 Offer줌)
☎ : 781-7305

22년된 꽃가게 매매 : F. T. D와 U. F. C멤버쉽이 있음.
☎ : 826-1992, 저녁6시이후 826-3246 SANDER JOHN

매 매
서울식당을 싸게 팝니다. 리스 : 3년3개월
☎ : 532-0602
미스타. 정

바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 성업중인 스토어를 형편상 급매코저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아래 전화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 531-0773 김 (오후6시 이후)

성업중인 햄버거 레스트랑 급매
15년 리스, 아스킹 $165,000
☎ : 535-2804 미세스 김

T. V. 스테레오 취급전문 : 연매상 45만달러
아스킹 : $7만+스탁
☎ : 533-2400 미스타 김

그로서리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조그만 가게를 원하시는 분은 연락바람
61 MAIN ST. TOR. ☎ : 694-7848

부 동 산 매 매 !
동부끝에 있는 방 여섯개의 집.
즉시 입주가능, 모게지가 없음.
ASKING $79,500.00
☎ : 461-5463

위치좋은 코너 그로서리 가게 매매
주매상 : $3000~$3500(특히 야채 적합함)
3888 BLOOR RT. W.

## 렌트

집세놓습니다 : 스카보로지역
방4개, 화장실2개, 지하실 있는 단층집
☎ : 968-9450

##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김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875 JANE ST. TOR.
＊생화, 조화, PLANTS ＊GIFT취급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 주문 배달함.
☎ : B) 769-0609
R) 242-5194 여 정 흥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스 타 미용실 미세스·김
남녀 커트, 파마 전문. 9AM~8PM ＊일·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소 니 아 미 용 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헬 렌 미용실 미세스·리
377 ALBION RD. REXDALE (B) 741-7829·742-8731
＊한국식품서부지점에서 동쪽2번째 시그날에서 내리면 됨

##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서비스 (B)255-2111 (R)231-2822
95 PORTLAND ST. ETOBICOKE.

L & K AUTO COLLISION
☎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KIPLING)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824(B), 226-5430(R) 변 달 원

##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뜸

## 시설및 수리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KIMBO ELECTRICAL CO.
ELECTRICAL CONTRACTOR
METRO LICENSE E-725
RESIDENTIAL, COMMERCIAL, INDUSTRIAL
TEL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김 부 원

주간女性

##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소파·체어·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 악 기 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 B. A. R. I. A.
METRO WIDE
Accounting &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CA Office 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 : 239-6802

## 에어콘·히팅·냉장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활 영

DALMER'S시설판매수리
에어콘·전기·개스·워킹쿨러, 후리저
☎ : (B) 746-3840, (R) 493-9945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새한칼라 현상소
680 BLOOR ST. W. TORONTO. ☎535-7772
●결혼 ●돌사진 ●각종 증명사진
●회갑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 기 타

PICTURE FRAME WAREHOUSE
각 종 액 자
3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 혜 숙

SUREKILLER
각종벌레, 개미, 바퀴벌레 : 100% 효과보장
☎ : 368-9018

##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 부부화목 모범가정, 밝아지는 교포사회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블론디 本社特約·連載漫畵 딘·영 作

"간식없이는 TV를볼 수 없나요?" "정말, 뚱뚱한 남편은 원치않아요" "TV를 보면 배고파 진단말이야" "그럼, 체중줄이는 프로를 골라보면 되잖아요"


싸다고 소문 난 가 나 안
카텐
2890 LAKESHORE BLVD. W.
(B) 252-4857
(R) 252-6602
유 원 덕


## 지난10년간 가요계 흐름

지난 10년간의 가요계는 트로트풍의 가요가 주름잡아왔다。「동백아가씨」 이후 최고히트곡으로 기록된 「돌아와요 부산항에」 「그때 그 사람」 「창밖의 女子」가 모두 트로트였다。지난 10년간 쏟아져나온 가요는 얼마나 되고 히트가요는 어떤 것이었을까。71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동안 발표된 국내가요는 5만6천여곡 (公倫심의필 악보기준)에 달하며 약 5천여종의 레코드가 선보였다。한해평균 5백여종의 새레코드에 5천6백여곡을 담은 셈이다。

국내가요의 발표는 71년(3천4백곡)에서 74년(2천6백곡) 사이에는 감소현상을 보였으나 75년부터 차츰 늘기 시작, 77년(8천3백곡)에 크게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9천6백곡을 기록하고 있다。80년 한햇동안에 새로선보인 국내가요음반(카세트제외)은 5백50여종(장), 하루평균 1·5종, 26곡의 새가요가 쏟아져나온 셈이다。또 외국가요는 4백80여종, 7천6백여곡이 새로 선보여 하루평균 1·3종, 20곡의 새노래를 수입, 탄생시켰다。

올 상반기엔 국내가요 3천75곡(하루평균17곡)이 1백37종(하루평균 0·8종)의 레코드에 담겼고, 외국가요는 3천7백17곡(하루평균20곡)을 2백73종(하루평균1·5장)의 레코드에 담았다。

70년대의 최고의 히트가요는 趙容弼의 출세작인 「돌아와요 부산항에」(77년)와 「창밖의 女子」(80년)를 들수있으며 沈守峰을 무명가수에서 정상에 올려놓은 「그때 그사람」이 뒤를 따른다。음반의 판매량은 제작사만이 아는 비밀。가요계의 소문으로는 「창밖의 女子」 「돌아와요…」가 판매기록 1백만장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실제로는 70만장정도 팔렸을거라는 것이 가요계의 추산이다。또 「그때 그사람」도 50만장ㅡ정도로 보고있다。

71년 이후 10년간의 히트가요의 흐름은…。

71년엔 裵湖의 「누가 울어」 「안녕」 등의 옛가락에 「님은 먼곳에」(金秋子) 「꽃한송이」(李美子) 「바다가 육지라면」(趙美美) 「이별」 「사랑하는 마리아」(패티金) 「커피한잔」(펄시스터즈) 「꽃반지 끼고」(恩姬) 등이 각축을 벌였다。이 가운데 빅·히트는 「님은 먼곳에」 「꽃 한송이」(10만장)를 들 수 있다。

南珍·羅勳兒가 인기대결을 벌인 72년은 「님과 함께」(南珍)와 「물레방아 도는데」(羅勳兒)가 선두다툼을 벌였고, 이어 「녹슬은 기찻길」(羅勳兒), 「공항의 이별」(文珠蘭)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공항…」은 이후 「공항 대합실」 「공항에 부는 바람」 등 시리즈가 발표돼 계속히트를 기록했고, 「녹슬은…」은 10년가까이 꾸준한 판매현상을 보이고 있다。

73년은 李洙美의 「여고시절」과 方珠蓮의 「당신의 마음」이 두 라이벌 작수의 경쟁속에 빅·히트 기록。74년에는 트로트리듬에서 탈피한 「미인」(申重鉉) 「불꺼진 창」(李章熙·금지곡) 「편지」(어니언스)가, 75년엔 「밤차로 떠난 여인」(河南鐵) 「고별」 「석별」(洪珉)이 주름잡았다。

76년은 河春花의 해라 할만큼 「잘했군 잘했어」가 히트했으며 77년은 「돌아와요 부산항에」가 단숨에 수십만장의 판매기록을 올렸다。그러나 대마초사건으로 趙容弼의 활동이 묶이면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河秀英)가 빛을 보기 시작했다。

78년엔 「모모」(金萬洙) 「당신만을 사랑해」(혜은이) 「오동잎」(崔憲) 「사랑만은 않겠어요」(尹秀一)가, 79년엔 「그때 그사람」 「제3한강교」(혜은이) 「아직도 그대는 내사랑」(李銀河)ㅡ 가요계를 수놓았다。그러나 이들 가요는 20만장미만에서 판매기록이 멎었다。80년대에는 趙容弼의 「창밖의 女子」에서 「촛불」을 거쳐 「미워 미워 미워」로 이어지는데 「미워…」는 출반 1개월만에 15만장이 넘어섰다고。

한편 70년대초등장한 외국복제음반은 폴·모리아의 연주곡집이 수위에 올라있고 아바、보니·엠、엘비스·프레슬리、비틀즈、도너·서머、케니·로저즈、레이프·개러트、롤리스、아라베스크、올먼즈가 부른 유행음악이 가요팬들의 주머니를 털어간것으로 나타났다。

【李李鎬기자】

## 流星의 賦 〈17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山空花自紅 ⑳

제남은 자기를 그곳으로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고 묻고 싶었으나 입을 뗄 수가 없었다。한편 초조하기도했다。하서와 권유봉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것 이었기 때문이다。

침묵이 너무 오래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제남이 용기를 내어 말했다。

「소인은 물러가 봐야겠읍니다」

「바쁠 것 없다」

아직 서른도 채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영의 풍채와 얼굴엔 꾸미지 않고도 갖추어진 위엄(威嚴)이 있었다。

「너희들이 하는 짓이 뭐냐」

「……」

「홍곡선생을 핍박하는 자들에게 철퇴를 내릴 작정으로 있는가 보는데 부질 없는 일이다」

「선생님을 해치려는 놈들에게 보복하려는 것이 어째서 부질없는 일입니까」

「너희들의 그런 행동이 되려 고인(故人)에게 대해 해독이 된다는 것을 모르느냐」

「지금 놈들의 주둥아리를 부셔놓지 않으면 필시 후환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홍곡의 행상은 이미 정해졌다。한치도 증(增)하지 못하고 한치도 감(減)하지 못한다。누가 무슨 소릴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바람이 일면 강물이 파도를 치듯 하지만 바람이 자면 다시 조용해진다。이렇게면 그러한 바람을 상대로 젊은 혈기를 소비해서 무엇에 쓰느냐 말이다」

「그 말씀 좋소이다。지금 우리들에겐 젊은 혈기를 달리 소비할 방도가 없아옵니다。바람 속에 휘말려 죽기를 기할 뿐입니다」

이영은 홍계남의 말을 납득했다。서출(庶出)、천출(賤出)의 청년들은 그 방장(方壯)한 혈기를 보람된 일로 발휘할 방도가 없는 것이다。

이영이 좀 전에 홍계남을 앞에 하고 크게 한숨을 쉰 것도 그 때문이었다。

「이렇게 잘 생기고, 정기와 용맹이있는 사나이가 그 뜻을 펼 수가 없다니 안타까운 일 아닌가」

하는 감회였다。

「그러나 홍공」

하고 이영이 말했다。

「언젠가는 장부의 뜻을 펼 날이 올걸세。그날을 기해 마음을 닦고 기(技)를 닦도록 하게。그러기 위해선 자중이 필요하다。은인자중(隱忍自重) 이거다」

「고마운 말씀입니다。그런데 한가지 물어 볼 말이 있읍니다」

「물어보게」

「나으리는 어떤사람이관데 우리들의 일을 그처럼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까」

「나도 홍곡선생에겐 적잖은 관심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네。그러하니 자연 자네들의 동태를 알게되질세。그런만큼 자네들의 신상이 걱정되기도하여 내나름대로 마음을 쓰고있는 참세」

「그런데 오늘 어청교(於靑橋)에 나오신 까닭은 뭐였읍니까」

「혹시 자네가 나타나지 않을까 해서 거기로 갔지」

「어떻게 저가 그곳에 갈 줄을」

「격물치지(格物致知)란게 있는 걸세」

「격물치지란?」

「정여립이 조정에서 하찮은 소릴 했다는 얘기를 들었지。그게 자네들 귀에 들어가지 않을리 없구。그렇다면 정여립을 자네들이 가만 두지 않을게 아닌가。한데 여립의 집은 남소영 근처에 있다。그러니까 내가 어청교 근처에서 기다린거다」